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초등학교

전	인	식	과	제	책	임	자
김	소	아	공	동	연	구	진
양	병	찬	공	동	연	구	진
조	창	희	공	동	연	구	진
한	만	길	공	동	연	구	진
송	수	정	연	구	조	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 초등학교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정책 심층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한국교육개발원 전 인 식 연구위원

요 약

이 연구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현황을 이해하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초등학교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됨. 본 연구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문헌고찰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됨. 우선 농어촌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기 수행되었던 통계 연구 자료를 재분석함. 이를 통해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 부문의 강점 및 취약점을 도출함. 이와 더불어 도출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우리나라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촌진흥청(2007~2011)의 한 조사 결과, 자녀교육 문제로 이농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30세 미만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청장년층의 이농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농어촌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농어촌 소재 학교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황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학교급별 관련 정책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세분화하여 살펴볼 초등학교급은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수학습 공간 면적 등의 측면에서는 도시보다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으나 학생 및 가정 배경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

이며, 그간 전원학교 정책사업 등을 통한 농어촌 초등학교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농어촌 초등학교가 도시 학교 대비 가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농어촌 초등학교 활성화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를 밝혀내어 확산이 필요함.

■ 연구방법

- 문헌 고찰 : 농어촌 초등학교에 관한 최근 연구문헌을 검토하여 농어촌 현황을 파악하고 농어촌 초등학교에 투입된 정책과 자발적 운동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자 교육부에서 실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과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사의 자발적 운동으로 형성된 ‘작은학교 교육연대’의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음.
-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실태 재분석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교육의 실태와 수준 분석(임현정, 김양분, 신혜숙, 신종호, 이광현, 2011)”과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김양분, 남궁지영, 김정민, 박경호, 임현정, 2014)”의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어촌 초등학교의 교육 실태를 이해하고자 도시와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학교운영,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생 및 학부모 특성, 교원 특성에서의 차이를 재분석하였음.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농어촌 초등학교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의 교장 및 교사 협의회를 실시 및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였음.

■ 주요 연구결과

○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실태 재분석 결과

- 학교운영 : 학교 규모는 읍·면지역이 도시 대비 작으나 학생 1인 당 면적은 읍·면지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남. 학급당 학생 수는 읍·면지역이 도시의 약 1/3 수준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 또한 도시의 1/3 수준으로 나타남. 교원경력은 읍·면지역이 도시 대비 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중점 교육목표는 읍·면지역은 기초학력 위주로, 도시지역은 자기주도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학교운영방식은 읍·면지역과 도시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교수학습지원에서는 읍·면지역이 도시 대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는 담임교사지도 외 보조교사, 방과 후 수업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된 데 비하여 읍·면지역은 담임교사 지도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환경 :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도시 학생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읍·면지역 학생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는 도시 대비 읍·면지역 학부모의 경우 만족도가 더 높게 분석됨. 도시가 읍·면지역 대비 학습문화가 우수하고 학습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읍·면지역 학생은 외재적 요인에 의한 학습 동기가 도시 학생 대비 높았음. 교우관계에 대해 읍·면지역 대비 도시 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폭력 또한 도시 대비 읍·면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동체 의식을 포함한 인성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읍·면지역 학교가 도시 학교 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진로성숙도나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도 읍·면지역이 더 낮게 분석됨.
- 교수학습 : 학습 관련 영역에서도 도시와 읍·면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교사의 학업 지원이나 수업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수업 태도나 주의집중시간 및 학습을 위한 끈기 수준이 도시 대비 읍·면지역

학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도 또한 도시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및 학부모 : 학생활동 및 시간활용 면에서 도시 학생이 읍·면지역 학생 대비 스스로 하는 공부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며, 읍·면지역 학생이 운동시간이 더 부족한 데 비하여 컴퓨터 및 휴대폰 사용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생의 가정배경에서도 읍·면지역이 한부모 가정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생이라 사회경제적 지위도 읍·면지역이 낮았음. 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문화적 활동 빈도가 더 높았으며, 부모자녀 관계도 도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부모의 학업지원과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월 평균 사교육 참여율에서 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약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원 : 교원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도시가 읍·면지역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반대로 교사의 인식은 읍·면지역이 도시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 면담 분석 결과 1 - 소규모 학교 성공 요인

- 교사의 헌신과 열정 : 교사들이 뜻이 맞는 동료 교사나 학부모, 혹은 시민단체와 결합하면서 지역사회와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고리로 작용함.
- 학부모의 지원 : 학부모가 학교운영을 주도하기보다는 교사의 학교 운영 서포터 역할과 각종 교육활동의 지원군으로 작용함.
- 지역자원 활용 :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학습과 노작활동을 통해 지식과 삶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함. 문화적 결핍 문제를 지역 전문가와 자원봉사 인력을 통해 해소함.
- 민주적 의사결정과 학교운영 : 학교와 관련한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가짐.
- 공동체 정신과 교육주체의 자발성 : 교육주체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만회하여 학생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 소규모 학교 자체 특성 : 소규모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수가 작아 비전과 철학을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용이하기 이루어질 수 있었음.
- 전문가 면담 분석 결과 2 - 지속가능한 소규모 학교 성공 조건
 - 지속가능한 교사 수급 : 소규모 학교 상에 맞는 교사를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일이 필요하며, 열정을 가진 적절한 교사를 찾는 경우 해당 교사를 학교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상, 학생상, 학부모상에 동의하는 교직원 :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감,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여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입 학부모와 학구(지역)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 다양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동문회,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존 학부모와의 비전 공유 : 토론모임,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학부모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제안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특히 초등교육)이 가능하도록 농어촌 및 벽지 소재 초등학교는 분교장의 형태로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규모 학교로서 결여되게 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어촌 학교 보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농어촌 학교를 구축하는 방향을 근간으로, 학교 문제를 교육적 접근을 넘어 지역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화, 맞춤형 개별 지도, 프로젝트 학습, 블록수업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 근무 교사들에 대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연수 및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재학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농어촌 거주 학생들의 가정배경 취약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농어촌 거주 초등학생이 방과 후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의 일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이 요구됨.
- 농어촌 학생의 학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면의 정서적 힘을 키우는 방안 등 비인지적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2.1. 문헌 고찰	3
2.2.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실태 재분석	3
2.3. 전문가 협의회 운영	4

제2장 농어촌 현황 및 교육 정책 분석

1. 농어촌 현황	5
1.1 인구수	5
1.2. 초등학생 수	6
1.3. 지역 규모별 초등학생 수	8
1.4. 초등학교 수	9
1.5 농촌 거주 의향에 관한 조사 결과	11
2. 농어촌 교육정책의 흐름	16
2.1.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논의 흐름	16
2.2.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22
2.3.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특징과 성과	38
2.4. ‘작은학교교육연대’ 형성	43

제3장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 실태 분석

1. 분석영역	53
2. 분석결과	56
2.1. 학교운영	56
2.2. 교육환경	59
2.3. 교수학습	62
2.4. 학생 및 학부모	63
2.5. 교원	65
3. 소결	66

제4장 농어촌 초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위한 면담 분석

1. 조사개요	69
1.1. 참여자들의 특성	70
1.2. 연구방법	70
1.3. 질문내용	71
2. 조사결과	72
2.1. 학교 운영	72
2.2. 여건	72
2.3. 작은학교 교육	73
2.4. 학생·학부모	73
2.5. 교원	73
2.6. 대안	74
3. 소결	75
3.1. 소규모 학교 성공 요인	75
3.2.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성공의 조건	79

제5장 정책제안

1. 정책제안	81
1.1. 농어촌 학교 보존에 대한 배려	81
1.2.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농어촌 학교 구축	82
1.3. 소규모 학교 운영 여건 개선	82
1.4. 교사의 적극적 역할 유도	83
1.5. 방과 후 시간 활용 방안 마련	84
1.6. 학력 제고를 위한 교사의 열정 지원	84
1.7. 긍정적 자아 확립과 회복 탄력성 배양 추구	85
참고 문헌	86
부 록	
[부록 1] 제3장.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실태 재분석 표	88
[부록 2] 제4장. 농어촌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면담 데이터	136

표 차 례

제2장

표 2-1. 인구수	6
표 2-2. 초등학생 수	7
표 2-3. 전국인구, 읍·면인구, 읍·면 초등학생수	8
표 2-4. 통·폐합 초등학교 수	9
표 2-5. 지역 규모별 초등학교 수 변화	10
표 2-6. 지역 규모에 따른 학생 수별 학교 수	11
표 2-7. ‘농촌 계속 거주 의향 이유’ 조사결과	12
표 2-8. 농촌 계속 거주 의향 이유 : 읍·면별	12
표 2-9. 농촌 계속 거주 의향 이유 : 영농여부	13
표 2-10. 농촌 계속 거주 의향 : 지역 및 연령별	14
표 2-11. ‘농촌은 어린이 양육에 좋은 환경인가’ 조사결과	15
표 2-12.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조사결과	16
표 2-13. 연도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현황(교육과학기술부, '09.8) ...	24
표 2-14. 학교 적정규모 관련 제도 주요내용 분류	26
표 2-15. 시·도교육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김양분 외, 2009)	27
표 2-16.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령 주요내용 분류	28
표 2-17. 시·도교육청 유형별 통·폐합 학교현황	29
표 2-18. 2011년 이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학교 현황	30
표 2-19. 조사 대상 학교	32
표 2-20. 학교급별 통·폐합 전후 현황 비교	32
표 2-21. 대상학교 설문회수 현황	34

제3장

표 3-1. 초등학교 교육실태 분석영역	54
표 3-2. 초등학교 학교현황 비교분석	57
표 3-3. 초등학교 학교경영 비교분석	58
표 3-4. 초등학교 교육여건 비교분석	58
표 3-5. 초등학교 학교만족도 비교분석	59
표 3-6. 초등학교 사회·심리적 환경 비교분석	60
표 3-7. 초등학교 비인지적 교육환경 비교분석	61
표 3-8. 초등학교 수업활동 만족도 비교분석	62
표 3-9.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비교분석	62
표 3-10. 초등학교 학생활동과 시간활용 비교분석	63
표 3-11. 초등학교 학생 가정환경 비교분석	64
표 3-12. 초등학교 가정교육환경 비교분석	64
표 3-13. 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학생인식도 비교분석	65
표 3-14. 초등학교 학교풍토에 대한 교사인식 비교분석	65

제4장

표 4-1. 협의회 질문내용	71
-----------------------	----

부록1

표 1.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수·학습 공간 면적	88
표 2. 초등학교 학교당 학급 수	89
표 3. 학급당 학생 수	89
표 4. 교원 1인당 학생 수	90
표 5.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 경력	91
표 6. 석사 졸업 이상 교사 비율	91

표 7. 중점 교육목표	92
표 8-1. 학교운영방식: 기존 제도 관행 수정	93
표 8-2. 학교운영방식: 교사들의 의견 반영	93
표 8-3. 학교운영방식: 교사들의 업무 경감 노력	94
표 9. 학교장의 교수-학습 지원	94
표 10. 학습부진아 지원	95
표 11. 학교 발전 저해 요인	96
표 12. 학교의 협력적 문화	97
표 13-1. 학생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98
표 13-2. 학생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99
표 13-3. 학생 만족도: 학업 만족도	99
표 14-1. 학부모 만족도: 학교교육 만족도	100
표 14-2. 학부모 만족도: 학교운영 만족도	100
표 15. 교사 만족도	101
표 16. 협력적 학습 문화	101
표 17. 경쟁적 학습 문화	102
표 18. 학업자아개념	102
표 19. 내재적 학습 동기	103
표 20. 외재적 학습 동기	104
표 21. 교과 자아개념	104
표 22. 자아존중감	105
표 23. 친구와의 관계	105
표 24. 학교 내 폭력 정도	106
표 25.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	106
표 26. 비행·일탈	107
표 27-1. 사회 자아개념	108

표 27-2. 학업 자아개념	108
표 27-3. 가족 자아개념	109
표 27-4. 신체 자아개념	109
표 28. 참여의식	110
표 29. 타인배려	110
표 30. 인성: 친절·양보	111
표 31. 인성: 책임·협동	111
표 32. 인성: 규칙준수	112
표 33. 다문화 수용성	112
표 34. 진로성숙도: 자기이해	113
표 35. 진로성숙도: 진로계획성	113
표 36. 미래핵심역량	114
표 37.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115
표 38.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	115
표 39. 학습태도	116
표 40. 수업 집중 시간	117
표 41. 학교 수업 태도	117
표 42. 수업 분위기	118
표 43. 교수자 중심 수업	119
표 44. 학습자 중심 수업	119
표 45. 교사의 학업적 지원	120
표 46. 학업성취도: 국어	120
표 47. 학업성취도: 영어	121
표 48. 학업성취도: 수학	121
표 49. 독서 향유 정도	122
표 50. 봉사활동 경험 여부	122

표 51.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123
표 52. 자기주도 학습시간	123
표 53. 운동 시간	124
표 54. 컴퓨터 사용 시간	124
표 55. 학습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125
표 56. 여가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126
표 57. 휴대전화 사용시간	126
표 58. 한부모 가정 비율	127
표 59. 부모의 학력	128
표 6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128
표 61. 문화적 활동	129
표 62-1. 부모-자녀 상호작용: 사회문화 측면(2011)	130
표 62-2.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족관계 측면	130
표 63. 부모의 교육적 지원	131
표 64.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	131
표 65. 사교육 참여 비율	132
표 66. 교사의 열의: 학생응답	132
표 67. 교사-학생 간 관계: 학생응답	133
표 68. 교사의 열의: 교사응답	133
표 69. 교사의 자율성	134
표 70. 교사 효능감: 교수 효능감	134
표 71. 교사 효능감: 생활지도 효능감	135
표 72. 교직 만족도	135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농어촌의 문제를 경제적 관점을 넘어 자연친화적 삶이 가능한 국토 보존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도시와 농어촌 동반발전의 측면에서 접근 필요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참조
- 농어촌을 떠나는 이유로 자녀의 교육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경우 자녀교육 문제로 이농하는 비율 높음
 - 청장년층의 이농은 농어촌을 고령자 중심 사회로 변모시키고, 결국 농어촌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임.
 - 일부 다문화가족, 귀농어촌가구 증가 현상이 있으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 없이는 안정적 농어촌 형성을 기대할 수 없음.

○ 연구 방향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고려해야 하는 초등학교급과 중·고등학교급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장점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학업성취도에 대한 우려와 중학교로의 진학에 따른 학교 부재는 이농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타남.
- 전원학교 사업 등 농어촌 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성공적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 의욕을 높여준 사례가 많지 않음.
- 농어촌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농어촌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되던 가운데, 역으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찾고,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귀향하는 사례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사례임.

○ 연구의 목적

- 기존 연구에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농어촌 초등학교 현황 이해
-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전원학교 육성 사업’과 교사의 자발적 운동인 ‘작은학교 교육연대’를 중심으로 농어촌 교육정책의 흐름 이해
-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인한 이농 방지 대책 수립
- 활성화된 농어촌 학교의 관계자 면담을 통해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2. 연구방법

2.1. 문헌 고찰

- 농어촌 초등학교에 관한 연구문헌을 통한 현황 파악
- 농어촌 초등학교에 투입된 정책과 자발적인 운동 관련 사례 분석
-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 관련 논의의 흐름 분석
 - 1982년부터 지속해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 2009년부터 면지역 초·중학교에 실시된 전원학교 육성 사업
 - 정책의 특성과 효과성 연구 분석, 정책의 효과성 고찰
 -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사의 자발적 운동으로 형성된 ‘작은학교연대’의 배경 분석

2.2.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실태 재분석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교육의 실태와 수준 분석(임현정, 김양분, 신혜숙, 신종호, 이광현, 2011)”과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김양분, 남궁지영, 김정민, 박경호, 임현정, 2014)”의 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도시와 읍·면지역 교육실태 차이 분석
 - 조사 자료는 학습, 심리, 태도, 교육여건 등 다양한 초등교육의 실태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 간 교육실태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음.
 - 원 조사에서는 지역 구분을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도서벽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통계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도시’와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농어촌 초등학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둠.

- 도시와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을 구하고 t검증을 재수행하여 읍·면지역이 도시지역과 학교운영,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생 및 학부모 특성, 교원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 제시함.

2.3. 전문가 협의회 운영

- 농어촌 초등학교의 교육 실태와 수준을 이해하고 공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 개최
 -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농어촌 교육 문제와 관련된 개선방안 수립에 대해 활성화된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교장 및 교사의 의견 수렴
 - 응답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의 형태를 구체화하여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교장 및 교사에게 2차 인터뷰 진행
 - 제시된 방안에 대하여 타 지역 초등학교의 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적용 가능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

제 2 장

농어촌 현황 및 교육 정책 분석

1. 농어촌 현황

1.1 인구수

- 지난 40년간 지속적인 도시 인구 증가 및 농어촌(읍·면지역)¹ 인구 감소
 - 1970년대 이후 인구 증가 : 1970년 31,435,252명 → 2010년 47,990,761명
 - 전국 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 비율 감소 : 1970년 58.9% → 2010년 18.0%
 - 읍지역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1990~1995년 제외)
 - 면지역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
 - 면지역 인구가 도시와 읍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¹ 본고에서는 편의상 '농어촌'과 '읍·면'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표 2-1. 인구수

단위 : 명, %

구분	전국	도시	농어촌			농어촌 인구 비율
			읍	면	전체	
1970	31,435,252	12,928,822	2,850,355	15,653,957	18,504,312	58.9
1975	34,678,972	16,769,946	3,720,417	14,185,121	17,905,538	51.6
1980	37,406,815	21,409,453	4,536,826	11,460,536	15,997,362	42.8
1985	40,419,652	26,417,972	4,814,407	9,187,273	14,001,680	34.6
1990	43,390,374	32,290,055	3,602,462	7,497,857	11,100,319	25.6
1995	44,553,710	34,991,964	3,480,784	6,080,962	9,561,746	21.5
2000	45,985,289	36,642,448	3,742,053	5,600,788	9,342,841	20.3
2005	47,041,434	38,337,699	3,922,597	4,781,138	8,703,735	18.5
2010	47,990,761	39,363,373	4,149,215	4,478,173	8,627,388	18.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970~2010)

1.2. 초등학생 수

- 초등학생 인구의 수가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 총인구 대비 초등학생 인구의 비율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표 2-2. 초등학생 수

단위 : 천명, %

구분	총인구	초등학생	구성비	구분	총인구	초등학생	구성비
1970	32,241	5,711	17.7	1998	46,287	3,887	8.4
1971	32,883	5,583	17.0	1999	46,617	3,981	8.5
1972	33,505	5,481	16.4	2000	47,008	4,073	8.7
1973	34,103	5,398	15.8	2001	47,357	4,152	8.8
1974	34,692	5,348	15.4	2002	47,622	4,191	8.8
1975	35,281	5,331	15.1	2003	47,859	4,178	8.7
1976	35,849	5,346	14.9	2004	48,039	4,112	8.6
1977	36,412	5,413	14.9	2005	48,138	4,016	8.3
1978	36,969	5,483	14.8	2006	48,372	3,919	8.1
1979	37,534	5,513	14.7	2007	48,598	3,798	7.8
1980	38,124	5,499	14.4	2008	48,949	3,627	7.4
1981	38,723	5,405	14.0	2009	49,182	3,442	7.0
1982	39,326	5,268	13.4	2010	49,410	3,276	6.6
1983	39,910	5,116	12.8	2011	49,779	3,098	6.2
1984	40,406	4,973	12.3	2012	50,004	2,923	5.8
1985	40,806	4,863	11.9	2013	50,220	2,788	5.6
1986	41,214	4,804	11.7	2014	50,424	2,762	5.5
1987	41,622	4,818	11.6	2015	50,617	2,736	5.4
1988	42,031	4,865	11.6	2020	51,435	2,719	5.3
1989	42,449	4,883	11.5	2030	52,160	2,663	5.1
1990	42,869	4,786	11.2	2040	51,091	2,378	4.7
1991	43,296	4,663	10.8	2050	48,121	1,912	4.0
1992	43,748	4,482	10.2	2060	43,959	1,805	4.1
1993	44,195	4,266	9.7	2030	52,160	2,663	5.1
1994	44,642	4,058	9.1	2040	51,091	2,378	4.7
1995	45,093	3,901	8.7	2050	48,121	1,912	4.0
1996	45,525	3,822	8.4	2060	43,959	1,805	4.1
1997	45,954	3,823	8.3				

자료: 조창희(발간예정),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 교육개발원.

1.3. 지역 규모별 초등학생 수

○ 총인구 증가 가운데 면지역 인구 급감

- 총인구 대비 면지역 인구 : 1970년 49.3% → 2010년 9.3%
- 면지역 총인구 대비 초등학생 수 : 1970년 9.85% → 2010년 0.45%

표 2-3. 전국인구, 읍·면인구, 읍·면 초등학생수

단위 : 천 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총인구	31,435	34,678	37,406	40,419	43,390	44,553	45,985	47,041	47,990
읍	32,850	3,720	4,536	4,814	3,602	3,480	3,742	3,922	4,149
면	15,653	14,185	11,460	9,187	7,497	6,080	5,600	4,781	4,478
읍 초등	521	594	686	603	416	309	324	363	324
면 초등	3,095	2,507	1,906	1,219	807	460	364	297	22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960~2010)

1.4. 초등학교 수

- 주민들이 농어촌(특히 면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주에 따라 면지역 학교의 소규모화
- 1982년부터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시작
- 1982년~2015년 : 1,187개 초등학교 본교 폐지, 2,353개 분교장 폐지

표 2-4. 통·폐합 초등학교 수

단위 : 개교

구분	폐지		구분	폐지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1982	10	12	1999	284	317
1983	9	21	2000	41	74
1984	2	15	2001	16	37
1985	2	13	2002	20	36
1986	0	9	2003	17	29
1987	8	17	2004	14	24
1988	3	42	2005	9	21
1989	9	43	2006	14	21
1990	5	47	2007	34	53
1991	46	133	2008	19	48
1992	77	184	2009	35	45
1993	75	160	2010	13	23
1994	90	252	2011	12	20
1995	104	228	2012	22	19
1996	42	134	2013	10	21
1997	53	94	2014	10	10
1998	76	146	2015	6	5
계				1,187	2,353

- 최근 10년간(2006~2015년) 지역 규모에 따른 연도별 초등학교 수 변화
 - 전국의 전체 초등학교 수 증가(5,733개교 → 5,978개교)
 - 도시의 초등학교 수 증가(3,083개교 → 3,464개교)
 - 농어촌 중 읍지역 초등학교 수 증가(읍: 617개교 → 654개교)
 - 농어촌 중 면지역 초등학교 수 감소(면: 2,033개교 → 1,860개교)

표 2-5. 지역 규모별 초등학교 수 변화

단위 : 개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5,733	5,756	5,813	5,829	5,854	5,882	5,895	5,913	5,934	5,978	
도시	3,083	3,133	3,204	3,256	3,288	3,332	3,364	3,400	3,426	3,464	
농어촌	읍	617	616	621	614	635	659	655	651	649	654
	면	2,033	2,007	1,988	1,959	1,931	1,891	1,876	1,862	1,859	1,860
	전체	2,650	2,623	2,609	2,573	2,566	2,550	2,531	2,513	2,508	2,51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2006~2015)

1.4.1. 학생 수 및 지역 규모에 따른 초등학교 수

- 지역 규모에 따른 학생 수별 초등학교 수 현황
 - 학생 수 201명 이상의 초등학교 약 59.98%
 - 학생 수 101명~200명 초등학교 약 7%
 - 학생 수 81~100명 초등학교가 약 4%
 - 학생 수 61~80명 초등학교가 약 6%
 -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약 23%
- 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의 소규모 학교 비율이 높음

표 2-6. 지역 규모에 따른 학생 수별 학교 수

단위 : 개교, %

구분	1~30명	31~60명	61~80명	81~100명	101~200명	201명이상	합계	
전국	601 [9.68]	839 [13.51]	366 [5.89]	239 [3.85]	440 [7.09]	3,725 [59.98]	6,210 [100.00]	
도시	15 [0.43]	53 [1.53]	45 [1.30]	47 [1.36]	183 [5.28]	3,124 [90.11]	3,467 [100.00]	
농 어 촌	읍	39 [5.79]	82 [12.18]	60 [8.92]	39 [5.79]	57 [8.47]	396 [58.84]	673 [100.00]
	면	260 [16.58]	582 [37.12]	223 [14.22]	135 [8.61]	178 [11.35]	190 [12.12]	1,568 [100.00]
	도서 벽지	287 [57.17]	122 [24.30]	38 [7.57]	18 [3.59]	22 [4.38]	15 [2.99]	502 [100.00]
	전체	586 [21.36]	786 [28.65]	321 [11.70]	192 [7.00]	257 [9.37]	601 [21.91]	2,743 [100.00]

주 분 자료는 2015. 4. 1.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2015)

1.5 농촌 거주 의향에 관한 조사 결과

- 면지역의 이농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를 떠나 귀농이나 농어촌 거주 주민이 발생하고 있음<표 2-7>.
- 읍·면지역 거주민들의 거주 이유 :
 - ‘선조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크고, 선조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사는 주민은 면지역일수록 더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떠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반면에 ‘자연환경이 좋아서’, ‘자녀교육 심신 건강을 위해’,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표 2-8>.

표 2-7. '농촌 계속 거주 의향 이유' 조사결과

단위 : 명, %

구분	거주이유별	2007	2009	2011
전체	응답자수	1,867	1,877	1,810
	전체	100.0	100.0	100.0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62.6	52.1	47.6
	자연환경이 좋아서	13.9	16.9	16.0
	자녀교육 심신건강을 위해	2.0	1.0	8.1
	농촌/농업이 좋아서	7.0	13.3	6.4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	0.5	1.2	0.5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10.6	10.7	13.2
	기타	3.5	4.8	8.2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부정기, 2007~2011)

표 2-8. 농촌 계속 거주 의향 이유 : 읍·면별

단위 : 명, %

구분	거주이유별	2007	2009	2011
면	응답자수	695	1,196	1,141
	전체	100.0	100.0	100.0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65.4	52.4	51.0
	자연환경이 좋아서	12.6	15.3	13.0
	자녀교육 심신건강을 위해	1.8	0.5	8.5
	농촌/농업이 좋아서	6.8	14.7	6.1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	0.5	0.7	0.4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9.6	10.8	12.5
	기타	3.2	5.6	8.6
읍	응답자수	1,172	681	669
	전체	100.0	100.0	100.0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57.8	51.5	41.9
	자연환경이 좋아서	15.9	19.7	21.1
	자녀교육 심신건강을 위해	2.4	1.7	7.5
	농촌/농업이 좋아서	7.2	10.9	7.0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	0.4	2.2	0.6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12.2	10.6	14.5
	기타	4.1	3.4	7.5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부정기, 2007~2011)

표 2-9. 농촌 계속 거주 의향 이유 : 영농여부

단위 : 명, %

구분	거주이유별	2007	2009	2011
농가	응답자수	1,151	-	1,061
	전체	100.0	-	100.0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66.5	-	53.2
	자연환경이 좋아서	10.9	-	13.2
	자녀교육 심신건강을 위해	1.3	-	5.8
	농촌/농업이 좋아서	9.9	-	8.1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	0.3	-	0.5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7.8	-	11.2
	기타	3.3	-	7.9
비농가	응답자수	715	-	749
	전체	100.0	-	100.0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56.2	-	39.7
	자연환경이 좋아서	18.7	-	19.8
	자녀교육 심신건강을 위해	3.2	-	11.4
	농촌/농업이 좋아서	2.3	-	4.0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	0.6	-	0.5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15.0	-	16.1
	기타	4.0	-	8.5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부정기, 2007~2011)

- 농어촌 주민들은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를 원하고 있음.
- 비교적 30대 이하의 경우,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농촌을 떠나겠다는 비율이 높음.

표 2-10. 농촌 계속 거주 의향 : 지역 및 연령별

단위 : 명, %

구분	구분	거주의향별	2007	2009	2011	
전체	소계	응답자수	2,000	2,000	1,995	
		전체	100.0	100.0	100.0	
		계속 살겠다	93.3	94.2	91.9	
		농촌을 떠나겠다	6.7	5.8	8.1	
지역	면	응답자수	1,236	1,261	751	
		전체	100.0	100.0	100.0	
		계속 살겠다	94.7	95.1	93.0	
		농촌을 떠나겠다	5.3	4.9	7.0	
	읍	응답자수	764	739	1,244	
		전체	100.0	100.0	100.0	
		계속 살겠다	91.0	92.6	90.0	
		농촌을 떠나겠다	9.0	7.4	10.0	
	연령	30대이하	응답자수	195	215	98
			전체	100.0	100.0	100.0
			계속 살겠다	77.6	76.0	68.4
			농촌을 떠나겠다	22.4	24.0	31.6
40대		응답자수	259	174	189	
		전체	100.0	100.0	100.0	
		계속 살겠다	87.2	87.2	80.5	
		농촌을 떠나겠다	12.8	12.8	19.5	
50대		응답자수	410	398	387	
		전체	100.0	100.0	100.0	
		계속 살겠다	94.3	94.7	88.5	
		농촌을 떠나겠다	5.7	5.3	11.5	
60대		응답자수	522	539	520	
		전체	100.0	100.0	100.0	
		계속 살겠다	95.8	98.0	94.5	
		농촌을 떠나겠다	4.2	2.0	5.5	
70대이상		응답자수	609	673	784	
		전체	100.0	100.0	100.0	
		계속 살겠다	98.2	98.4	97.5	
		농촌을 떠나겠다	1.8	1.6	2.5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부정기, 2007~2011)

- 30, 40대 주민이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
 - 농촌 주민의 40%가 ‘농촌이 어린이 양육에 좋은 환경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응답²으로 미뤄 자녀 양육문제가 주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비율이 33.8%이고, 30대 이하의 경우에는 66.3%
- 농어촌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서 ‘어린이 양육’과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 지원되지 않는다면 30대를 중심으로 이농현상은 가속화 예상됨.
- 농어촌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서 ‘어린이 양육’과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 지원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시설과 학교가 필수적임.
 - 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통원이나 통학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음.
 - 학교의 통·폐합은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2-11. ‘농촌은 어린이 양육에 좋은 환경인가’ 조사결과

단위 : 명, %

구분	2007	2009	2011
응답자수	2,000	1,996	1,989
전체	100.0	100.0	100.0
그렇다	26.8	36.5	31.9
보통	31.3	24.0	28.0
아니다	41.9	39.5	40.1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부정기, 2007~2011)

²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의 ‘농촌이 어린이 양육에 좋은 환경인가’라는 항목과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 조사 항목

표 2-12.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조사결과

단위 : 명, %

구분	2007	2009	2011
응답자수	133	117	158
전체	100.0	100.0	100.0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11.9	9.4	17.9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39.5	29.1	33.8
소득이 적어서	13.8	25.8	15.9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9.4	15.3	8.6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8.6	11.7	9.0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	6.5	3.5	8.8
기타	10.2	5.2	6.0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부정기, 2005~2011)

2. 농어촌 교육정책의 흐름³

2.1.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논의 흐름

- 농어촌 인구 및 학생 수 감소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 1981년 9월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 1982년부터 통·폐합 계획 수립하여 추진
- 1995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목적(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 자료 참조)
 - 첫째,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를 통한 교육 효과 제고

³ 본 절은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이해영 외(2010).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복식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복식수업은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임.
- 둘째, 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인력 및 재정적 효율성 제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 기대
- 1999년 IMF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 그 필요성은 학생, 교직원, 교육 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음.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 : 학생 측면
 - 학생 수가 적어 복식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짐.
 -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구와 교재를 구비함에 적은 수의 학생들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남.
 - 학생 수가 적어서 구기 중목, 토론, 합창 등과 같은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력한 수업이 진행됨.
 -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정상 규모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성취도가 낮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더 심화되고 있음.
 - 사회성 및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성취 욕구 및 자율적 사고, 책임 의식 등도 더 낮음.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 : 교원 측면
 - 복식수업을 위한 여러 학년의 수업 준비 및 진행으로 교원의 부담이 큼.
 - 소수의 교원이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많아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음.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 : 교육환경
 - 적은 학생 수 대비 과다 관리직 배치로 투자 효율성이 낮음.
-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⁴
 - ① 학생들은 경쟁 부족으로 학습동기가 저하되고, 또래 집단의 형성이 곤란하며, 이는 곧 낮은 진취성과 협동의식으로 이어짐.

4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2006, 교육인적자원부)

- ② 초등학교의 경우는 복식수업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③ 학생 1인당 2~7배 교육비 소요로 인한 비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초래
- 소규모 학교의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화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중요함.
- 정부가 설정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목적
 - 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 ②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 ③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정부 평가 결과(2006년)
- 긍정적인 측면
 - 교육적 측면에서는 복식수업 해소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 학습 동기 향상, 사회성 강화 등의 성과
 - 경제적 측면에서는 1982년부터 2006년 5월까지 1.7조원의 예산 절감
- 문제점
 -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강력 시행과 더불어 시행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 재정 지원이 중앙 정부 차원이었다가 시·도 차원으로 변경
 - 분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다가 분교장을 폐지하는 통·폐합 모델이 교육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 모두에 적절하지 않았음.
-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이혜영 외, 2010).
 - ① 경제 논리에 의해 교육과 문화를 희생시키는 것임
 - ② 교육에 대한 지역 간 차별화 정책임
 - ③ 이촌향도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킴

○ 정부의 주장

- ① 교육의 효율성 제고는 재정적인 효과성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임.
- ② 소규모 학교에서 복식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교육적 비효율을 줄이는 것임.

○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및 교육효과 논의

○ 이정선(이정선, 2000)은 소규모 학교 학생의 일인당 교육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교육효과를 따져 보았을 때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

-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의 논리가 우선시 되어야 함은 당연
- 공교육 제도 운영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고려는 당연한 것임.
- 교육의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관점임.
- 경제적 논리를 적용할 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학교 통·폐합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효과성을 검토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학생 수라는 기준 하나로 놓여촌의 교육 문제를 들어 통·폐합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 학교의 강점과 긍정적 효과를 검토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방향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함.

- 국외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강점을 살려 이를 활성화시키고 있기도 함.
- 최준렬과 강대중(2007)⁵은 소규모 학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이미 통합된 학교도 곧 다시 규모가 작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폐교하기 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방향에서 효율성 증대 제고 필요성 주장

⁵ 최준렬, 강대중(2007),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재인용.

- “교육에 대한 지역 간 차별화 정책 중 하나로서의 작은 학교 통·폐합”은 교육기본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며,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주민의 배움에 대한 기회 확대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함(이혜영, 2010).
- “작은 학교 통·폐합은 농가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여 아무도 살지 않아서 동네전체가 비게 되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통·폐합 정책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 정부는 도시보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여건으로 인해 이농이 가속화되고 학교 소규모화가 교육적으로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통·폐합을 통해 여건을 개선하여 이농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
 - 통·폐합 반대론자들은 통·폐합으로 인해 이농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
-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효과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본 이혜영 외(2010)의 연구에서는 통합된 학교로 옮겨오기 전과 후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 참여도, 이해도, 학습동기, 학업성취를 조사 비교
 -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응답 결과, 통·폐합된 학교로 옮겨온 후 앞서 제시한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70% 이상이 긍정적)
 - 중학생과 학부모는 초등학교급 대비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음.
 - 통·폐합된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을 폐교 전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
 - 이혜영 외(2010)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과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학교급 간 발생하는 격차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에 대해 제언
 - 통·폐합된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점, 통·폐합 정책 추진 실태와 문제

점, 해당 정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사 결과

- 통·폐합 된 학교로 전학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업 지장’, ‘통학 차량 시간으로 인해 원하는 수업 참여 곤란’, ‘통·폐합 학교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교사의 개별 지도 축소’를 불편사항으로 지적
- 통·폐합 정책 추진 시 교육청의 학부모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음.
- 통합된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에 대한 학교장의 어려움
 - 1순위 : 학생 통학 길이 멀고 험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
 - 2순위 : 학생 통학차량 시간과 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교 시간이 맞지 않는 점
-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 조사 결과
 - 많은 과소규모 학생 및 학부모가 운동 또는 대회에서 타 학교와 경쟁을 하거나 친구 많이 사귀기, 학교 행사 등에서 적은 학생 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함.
 - 반면에 협동심을 기르거나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등에서는 곤란을 덜 겪는다고 응답함.
 - 학교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규모로 인한 문제를 더 실감하고 있음.
 - 교사 및 교장은 학교 규모로 인한 학교 운영 측면의 어려움보다는 교육 효과 측면에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음.
 -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대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장 모두 찬성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함.
- 학교 통·폐합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 조사 결과

- 학교 구성원은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존중”, 지역 주민은 “지역의 특수한 조건과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음.
- “지역의 특수한 조건과 학생들의 통학 여건”,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 규모의 학급 및 학교 규모 유지” 모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
- 이해영 외(2010)은 “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가 중요성을 낮게 부여하고 있음을 근거로 재정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통·폐합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 있음을 지적

○ 이해영 외(2010)에서 제시한 정책 개선 방안

- 첫째, 통·폐합 정책 추진 시 학생 수의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함.
- 둘째, 소규모학교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예를 들어, 복식수업 내실화 방안, 소규모 학교 자율성 확대, 원격 교육체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음.
-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과 관련된 편의성 제고, 통·폐합 지원금 사용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폐교를 활용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안함.

2.2.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2.2.1. 연도별 추진방향

○ 교육부는 1980년대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 추진 배경(학생들의 교육력 제고, 학습권 보장, 교육재정의 효율적 투자)

○ 1981년 9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동일면내에 있는 학교로서 180명 미만의 학생 수, 6학급 이하의 학급편성이면서 통학거리 4km이내에 인

근학교가 있는 경우)

- 1982년부터 통·폐합 정책 추진
- 1993년에 대상학교를 학생 수 18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보완
- 1999년에 재정 지원을 시작하여 2009년까지 본교 폐지·통합에 10억 원을 지원하며, 분교장 개편에 2천만 원, 분교장 폐지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06년 교육부는 본교 통·폐합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분교장 통·폐합은 학생 수 20명 이하의 분교장을 대상으로 학부모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음. 또한 60명 이상의 학교 중에서도 통·폐합 여건이 조성되어 희망하는 학교와 200명 이하 도심 공동화 학교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교육부는 일률적인 통·폐합을 지양하고 반대가 심한 지역과 도서벽지지역 그리고 학생 수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 육성, 특성화 학교, 대안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2011년 들어 교육부⁶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기회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통·폐합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2012.11.14)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통·폐합 기준은 동일하나 본교 폐지 시 초등학교는 시지역 60억, 기타지역 30억 원을 중등학교는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분교장은 폐지 10억, 분교장개편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분교장에 대한 지원 금액은 본교폐지 시보다 적은 금액임에 따라 분교장 개편 및 폐지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6 교육부(2011).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표 2-13. 연도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현황(교육과학기술부, '09.8)

연도	추진내용 및 통·폐합 실적	통·폐합 기준	지원액
'82~'98	-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 - 영세사학 해산특례('97) ⇒ 3,743교 통·폐합	180명('81.9), 100명 권장('93.9)	
'99	- 정부 재정지원(2,577억원) ⇒ 971교 통·폐합	100명	본교 폐지 5억 분교장 폐지 2억 분교장 개편 0.2억
'00~'05	-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 ⇒ 183교 통·폐합	100명	
'06~'09	-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 정부 재정지원(2,019억원) ⇒ 344교 통·폐합	60명(농·어촌) 200명(도시) (시·도별 자체기준 설정 가능)	본교 폐지 10억 분교장 폐지 3억 분교장 개편 0.2억 (특별교부금)
'10~'12	-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 350교 통·폐합 목표	60명(농·어촌) 200명(도시) (시·도별 자체기준 설정 가능)	본교 폐지 20억 분교장 폐지 10억 분교장 개편 1억 (보통교부금)
'13~'16	-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 610교 통·폐합 목표	60명(농·어촌) 200명(도시) (시·도별 자체기준 설정 가능)	본교 폐지 60억(초등) 분교장 폐지 10억 분교장 개편 1억 (보통교부금)

2.2.2. 근거 법령 및 통·폐합 기준

가) 법령 및 제도⁷

-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에서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은 시·도별 교육감에게 있음.
-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제 1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
 - 학교를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실정 및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음.
 -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임.
- 적정규모학교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에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또한 1980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법정 기준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국내 학교규모 관련 정책은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과 소규모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어 왔음. 특히, 학교 통·폐합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해 수행되며, 통·폐합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하여 지원되고 있음.

⁷ 강은주(2014).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 분석, 탐라문화 47권.

표 2-14. 학교 적정규모 관련 제도 주요내용 분류

구분	관련규정	내용
학교규모 관련기준	학생 수용배치계획	- 학교학급당 학생 수 제시 - 학교신설계획
학교 통·폐합기 준	시·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7조	-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 제시 -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 제시 -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 전 지원

자료: 강은주(2014),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 분석, 탐라문화 47권

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권고, 시·도 교육청별로 별도 기준 마련 통·폐합 추진중임.
- 2015년 5월 기준 시·도교육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 농·어촌지역은 60명 이하가 가장 많음
 - 강원 15명 이하, 전북 20명 미만
 - 도시지역은 대체로 200명 이하, 서울 지역 300명 미만
 -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농·어촌 및 도시 구분 없이 모두 60명 이하
 - 충북, 충남, 제주는 별도의 통·폐합 기준이 없음
- 분교장 개편의 경우
 - 대전(농어촌) 복식학급 편성 시, 울산 4학급 이하, 전북 10명 미만, 경북 15명 미만, 강원 20명 이하, 경기 60명 이하
 - 대전(도시) 100명 이하
- 분교장 폐교는 강원 5명 이하, 전남 초등학교 20명 이하
- 분교장 개편 및 폐교는 분교 통·폐합과 달리 시·도교육청의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시·도교육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김양분 외, 2009)

구 분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분교폐교	분교장개편	분교장폐교	분교폐교	분교장개편
시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0명 이하	대전 복식학급 편성 울산 4학급 이하		부산, 광주, 대전 200명 이하, 서울 300명 미만	대전 100명 이하
도지역	강원 15명 이하 전북 20명 미만 경기, 전남, 경북 60명 이하	전북 10명 미만 경북 15명 이하 강원 20명 이하 경기 60명 이하	강원 5명 이하 전남 초 20명 이하	경기, 경북 200명 이하	

주 1) 충북, 충남, 제주는 별도 통·폐합기준 없음

2) 유의사항

- 초등학교 1면 1교 시 제외
- 분교장 폐교는 본교폐교와 상이할 경우만 표기
-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농·어촌 및 도시 구분 없이 농·어촌에 표기(단, 서울시는 도시지역)
- 대구는 농·어촌지역은 달성군, 도시지역은 대구광역시임
- 전남은 초:도서 50명, 육지 60명 이하, 중:1면1교 50명, 1면2교 60명 이하
- 경남 거점학교 추진은 초 : 학생 수 무관, 중 : 60명 이하(설립규모 : 약200명)

자료: 교육부('15년 4월 기준), 시·도교육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2.2.3.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현황

- 2013년 9월 기준 통·폐합되거나 향후 통·폐합 대상 학교 : 총 3,989개교
 - 학교급이 같은 경우 3,902개교, 학교급이 다른 경우 87개교 : 학교급이 같은 경우 대부분 통·폐합됨.
- 2013년 이후
 - 학교급이 같은 경우 : 초등학교 3,587개교, 중학교 265개교, 고등학교 50개교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대부분임.

- 학교급이 다른 경우 : 초·중통합 30개교, 중·고통합 51개교, 초·중·고통합 6개교로 중·고 통합운영학교가 가장 많았음.

표 2-16.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령 주요내용 분류

구분	관련규정	내용
적정규모유 지지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 1항 6호	교육감의 농·어촌학교에 대한 자율권 부여 권한
학교폐교	초중등교육법 65조 초중등교육법 66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 5호	교육청의 학교 폐쇄 권한 학교 폐교시 관할청의 청문 의무 학교 폐교시 학교설립경영자의 처리 서류 제출 의무 교육감의 학교 이전 및 폐지에 관한 권한 통·폐합 대상 학교·시기 기재
학교통합	초중등교육법 30조 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6조 1항	필요하면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운영 학교통합운영 시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 고려
학급통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6조	2개 학년 이상의 학생 1학급으로 편성 가능

자료: 강은주(2014),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 분석, 탐라문화 47권

- 시·도별 : 전남 811개교, 강원 797개교, 충남 592개교, 경남 565개교, 전북 345개교, 충북 290개교, 경기 289개교, 경북 125개교, 인천 54개교, 제주 37개교, 부산 30개교, 대구 25개교, 광주 22개교, 대전 3개교, 서울 및 울산 각 2개교, 세종은 통·폐합 학교가 없음.
- 학교급별 : 초등학교는 강원도가 787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경남이 57개교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는 전남이 19개교로 가장 많았음.
- 통합운영학교 : 초·중 통합은 충남이 7개교, 중·고 통합은 경기도가 20개교, 초·중·고 통합은 인천이 4개교로 가장 많았음.
- 시·도별 통·폐합 대상 학교 수 : 총 193개교

- 경북 72개교, 충북 39개교, 전남 29개교, 경남 28개교, 충남 12개교, 강원 7개교, 서울, 부산 각 2개교, 대전, 울산 각 1개교 순으로 많았음.
-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제주는 2014년 이후 통·폐합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통·폐합 학교 증가율은 경북(58%)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9개교, 중학교 80개교, 고등학교 14개교로 초등학교 통·폐합이 가장 많았음.

표 2-17. 시·도교육청 유형별 통·폐합 학교현황

시·도	학교급 같은 경우				학교급 다른 경우				총계		총계		
	초	중	고	계	초+중	중+고	초+중+고	계	빈도	%	2013	2014 이후	증가률 (%)
서울	1	1							2	0.1		2	100
부산	18	12		30					30	0.8	28	2	7
대구	21	4		25					25	0.6	25	0	0
인천	47	2		49		1	4	5	54	1.4	54	0	0
광주	15	7		22					22	0.6	22	0	0
대전	1	2		3					3	0.1	2	1	33
울산	2			2					2	0.1	1	1	50
세종													
경기	260	3			5	20	1		289	7.2	289	0	0
강원	787	8	2	797					797	20.0	790	7	1
경북	87	33	4	124	1			1	125	3.1	53	72	58
경남	504	57	4	565					565	14.2	537	28	5
충북	241	29	9	279	6	5		11	290	7.3	251	39	13
충남	523	41	6	570	7	15		22	592	14.8	580	12	2
전북	307	16	6	329	6	9	1	16	345	8.6	345	0	0
전남	742	50	19	811					811	20.3	782	29	4
제주	31	0	0	31	5	1		6	37	0.9	37	0	0
전국	3,587	265	50	3,902	30	51	6	87	3,989	100	3,796	193	5

- 2011년 이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통해 개교된 학교 20개교⁸
 -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통합운영학교 1개교
 - 지역별로는 울산, 강원, 충남, 경남 각 1개교, 충북, 경북 각 2개교, 전남 12개교로 전남의 거점고가 가장 많이 개교되었음.
-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통한 개교예정⁹ 학교 18개교
 - 초등 3개교, 중 13개교, 고 1개교, 통합운영 1개교(대부분 기숙형 중학교)
 - 시·도별 개교예정 학교현황은 울산, 강원, 전남 각 1개교, 경남 2개교, 충북, 충남 각 3개교, 경북 7개교이고, 경북은 대부분 기숙형 중학교임

표 2-18. 2011년 이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학교 현황

구분		전국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초	계	7	2	1		2	2		
	개교	4	1	1		1	1		
	개교예정	3	1			1	1		
중	계	18			5	2	6	3	2
	개교	5			2			1	2
	개교예정	13			3	2	6	2	
고	계	11							11
	개교	10							10
	개교예정	1							1
통합운영	계	2		1			1		
	개교	1					1		
	개교예정	1		1					
전체	계	38	2	2	5	4	9	3	13
	개교	20	1	1	2	1	2	1	12
	개교예정	18	1	1	3	3	7	2	1

8 서울 홍일초, 신흥초 통·폐합(한울중 이전재배치)는 현황에서 제외함.

9 개교예정 학교현황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혹은 조건부추진으로 확정된 학교에 대하여 각 시도별 최종적인 개교예정일을 반영하였음.

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통·폐합 효과분석¹⁰

- '11년 이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으로 추진된 학교 중 '13년까지 개교, 운영 중인 10개교(초 4, 중 2, 고 4)를 대상 통·폐합 후 효과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9개교 학교(단, 중학교와 중·고 통합학교는 각 1개교임) 대상 통·폐합 전후 학교현황 조사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통·폐합 학교들의 학생 수는 통합 전 3,822명에서 통합 후 3,748명으로 74명(-2.0%) 감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0명, 고등학교 38명, 중·고 통합운영학교 2명 감소, 중학교는 36명 증가
 - 부지면적은 통합 전 442,459㎡에서 통합 후 216,133㎡로 226,326㎡(-104.7%) 감소
 - 향후 폐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고려될 필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8,004㎡, 중학교 45,161㎡, 고등학교 58,301㎡, 중·고 통합운영학교 34,860㎡가 감소하였음.
 - 연면적은 통합 전 72,559㎡에서 통합 후 139,930㎡로 67,371㎡(48.1%) 증가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434㎡, 중학교 2,399㎡, 고등학교 42,406㎡, 중·고 통합운영학교 19,131㎡가 증가
 - 교직원수는 통합 전 529명에서 통합 후 431명으로 98명(-22.7%) 감소
 -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한 교직원이 88명(-26.5%), 학교회계 비정규직이 14명(-18.2%) 감소하였으나, 학교회계 교직원은 4명(18.2%) 증가.
 - 조사결과, 통·폐합이 교직원수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0 조창희(발간예정),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참조

표 2-19. 조사 대상 학교

구분	초등학교(4)	중학교(2)	고등학교(4)
학교명	두동초, 사북초, 영덕야성초, 해미초	속리산중, 오성중	나주고, 해남고, 완도고, 보성고

표 2-20. 학교급별 통·폐합 전후 현황 비교

학교명	학생 수 (명)	교직원수(명)				부지 면적 (m ²)	연면적 (m ²)	
		교특	학교회계		계			
		교직원	교직원	비정규직				
초	통·폐합전	1,280	147	18	35	200	158,775	22,346
	통·폐합후	1,210	114	22	31	167	70,771	25,780
	증감	-70	-33	4	-4	-33	-88,004	3,434
	증감률(%)	-5.8	-28.9	18.2	-12.9	-19.8	-124.4	13.3
중	통·폐합전	86	33	0	7	40	72,341	6,295
	통·폐합후	122	20		9	29	27,180	8,694
	증감	36	-13	0	2	-11	-45,161	2,399
	증감률(%)	29.5	-65.0		22.2	-37.9	-166.2	27.6
고	통·폐합전	2,257	208	0	44	252	163,320	36,723
	통·폐합후	2,219	177	0	35	212	105,019	79,129
	증감	-38	-31	0	-9	-40	-58,301	42,406
	증감률(%)	-1.7	-17.5		-25.7	-18.9	-55.5	53.6
중고	통·폐합전	199	32		5	37	48,023	7,195
	통·폐합후	197	21		2	23	13,163	26,326
	증감	-2	-11	0	-3	-14	-34,860	19,131
	증감률(%)	-1.0	-52.4		-150	-60.9	-264.8	72.7
전체	통·폐합전	3,822	420	18	91	529	442,459	72,559
	통·폐합후	3,748	332	22	77	431	216,133	139,930
	증감	-74	-88	4	-14	-98	-226,326	67,371
	증감률(%)	-2.0	-26.5	9.6	-18.2	-22.7	-104.7	48.1

- 속리산중학교 폐교지역의 읍·면지역 인구수는 폐교 전·후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어 소규모학교 폐지는 지역사회 인구수 변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이화룡(2013))¹¹
 - 통합학교 지역의 인구수 감소 추세는 진정됨.
 - 통합학교 개교후 사회적 이동(순인구유입율)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

다)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후 만족도조사¹²

- 적정규모학교로 통합 후 2011년 이후 개교하여 운영 중인 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통합전후의 대상학교 현황분석, 학교 교육학습, 학교생활, 통학환경, 학교시설, 자랑거리와 개선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¹³
- 충북 속리산중은 기존 설문조사(2013년 1월 실시) 자료 활용
- 2012년 이후 개교한 6개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2015년 3월 실시)를 시행 분석
 - 설문조사의 평균 회수율 : 초등학교 학생 58.9%, 학부모 31.8%, 교사 56.9%, 중학교 학생 70.8%, 학부모 44.9%, 교사 75.6%, 고등학교 학생 72.3%, 학부모 68.8%, 교사 33.3%
 - 일부 학부모 응답률을 제외하고 50%이상의 회수율을 나타냈음.
- 초등학교의 통학환경은 두동초를 제외하고는 2km 이내(10분 내외)로 조사되었고, 학교별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통학거리가 먼 학생을 지원함.
 - 영덕야성초를 제외하고는 통학버스 이용률이 높았으며, 통학환경 만족도는 통학거리 4.2점(5점 척도), 통학로 안전 4.1점, 통학시간 4.0점으로 대

11 이화룡(2013), 속리산중학교 효과분석 이슈페이퍼 연구, 충청북도교육청.

12 송정은(2015),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재정성과분석 및 만족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참조.

13 설문 방법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survey.kedi.re.kr:8989/admin.php>)의 설문조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으며, 대상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해당 링크를 접속하여 참여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부분 만족하였음.

표 2-21. 대상학교 설문회수 현황

학교명	통합 후 학생			통합 후 학부모			일반 학생			일반 학부모			교사			비고
	대상인원	응답자	회수율 (%)	대상인원	응답자	회수율 (%)	대상인원	응답자	회수율 (%)	대상인원	응답자	회수율 (%)	대상인원	응답자	회수율 (%)	
영덕 야성초	183	117	63.9	183	60	32.8	360	211	58.6	360	110	30.6	36	28	77.8	1
해미초	78	36	46.2	78	57	73.1	80	38	47.5	80	56	70.0	21	15	71.4	2
두동초	27	14	51.9	27	5	18.5	57	57	100	57	14	24.6	11	4	36.4	3
사북초	132	77	58.3	132	4	3.0	122	55	45.1	122	2	1.6	19	8	42.1	4
속리산중	26	11	42.3	26	9	34.6	96	45	46.9	96	36	37.5	13	11	84.6	5
괴산 오성중	-	-	-	-	-	-	136	132	97.1	136	73	53.7	21	14	66.7	6
포항과학 기술고	-	-	-	-	-	-	202	146	72.3	202	139	68.8	21	7	33.3	7

주 1) 대상학교 학생 수, 교사수는 2015.3. 기준임.

2) 1 일반: 1~4학년, 통합: 5~6학년 / 2 일반: 1~4학년, 통합: 5~6학년 / 3 일반: 1~4학년, 통합: 5~6학년 / 4 일반: 1~3학년, 통합: 4~6학년 / 5 일반: 1~2학년, 통합: 3학년 / 6 일반: 1~3학년 / 7 일반: 1~3학년

- 중학교의 통학환경에서 속리산중은 기숙형중학교로 통학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음. 괴산오성중도 76%이상 기숙사생활을 하며 평일에는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일반적으로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통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통학환경 만족도는 통학거리 4.2점, 통학로 안전 4.4점, 통학시간 4.2점으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음.
- 고등학교의 통학환경은 기숙사생활은 12.9%만 하고 있었으며, 그 외 학

생은 평균 통학거리 21.3km(도보 20분, 대중교통 66.3분)로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통학 만족도가 낮았음.

○ 학교교육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

- 초등학교 4.10점, 중학교 4.30점, 고등학교 3.43점으로 중학교가 가장 높았음.
- 초등학교는 통합전후에 있었던 학생과 일반학생과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영덕야성초와 해미초는 통합학생보다는 일반학생의 만족도가 높아 통합 개교 후 교육과 학습에 대한 개선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두동초의 경우 통합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비슷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사북초의 경우에만 통합학생의 만족도가 높아 통합 후에 교육과 학습 부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 학습 만족도 조사 항목으로는 교사의 열의와 공정한 평가, 수준별 수업과 수업분위기, 교과교실제, 교과교실과 학업성취, 방과후 수업, 교육 외 활동, 학급친구와 경쟁, 인성교육과 교사존경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음.
-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초등학교는 두동초와 사북초가 통합 후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반학생도 만족하고 있었음.
- 속리산중과 괴산오성중의 일반학생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속리산중은 평균 4.38점, 괴산오성중은 평균 4.26점으로 속리산중의 만족도가 높음.
-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35점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낮은 결과로, 특히 학교폭력과 따돌림, 적극적인 학생의견 수렴 부분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또한 사제 및 교우관계는 3.65점으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음.

○ 학교시설 만족도

- 초등학교는 평균 4.20점으로, 특히 시설의 편리성 부분에서 대부분 학교가 높은 만족도를 보임, 두동초의 경우 통합학생은 4.93점으로 매우 만족

하였음.

- 중학교는 숙리산중은 평균 4.31점, 괴산오성중은 4.43점으로 괴산오성중 학생이 학교시설에 대하여 더 만족하고 있었음.
- 고등학교의 시설만족도는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편리성 항목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컴퓨터 사용의 편리성은 낮게 나타났음.
- 중·고등학교의 기숙사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 결과
 - 숙리산중 학생은 통학시간이 줄어들며, 학부모와 교사는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
 - 괴산오성중 학생은 통학시간 단축, 학부모는 학업성적 향상, 교사는 학습환경의 개선을 가장 큰 효과라고 응답
 - 포항과학기술고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통학시간 단축에 가장 만족
- 초·중·고등학교의 각 학교의 자랑거리에 대한 조사 결과
 - 초등학교는 대부분 쾌적하고 좋은 교육시설을 선택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기숙형학교, 교사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선택
 - 고등학교는 쾌적하고 좋은 교육시설을 자랑거리로 선택

2.2.4.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의 문제점¹⁴

-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와 언론자료 검토 결과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통합 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통·폐합 주체간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음
 -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주도하는 정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민 등 통·폐합에 반대한 집단과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13년에는 전남과 경남 등에서 통·폐합 반대를 위한 시위가 다수 발생

14 송정은(2015),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재정성과분석 및 만족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참조.

하였으며, 일부 통·폐합이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

-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통·폐합에 따른 이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사업추진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문제점은 주민들에게 폐교에 따른 상실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통합되는 학교만이 경제적 교육적 이익이 창출되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래서 육성사업추진과정은 이해관계자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함.
 - 또한 소규모 통·폐합이 학교 간 통합만이 아닌 한지역의 지역 간 통합과 정임을 명시시킬 필요성이 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지역민과 더불어 교사집단인 교원단체의 반대의견이 매우 많았음.
 - 교사집단은 폐교에 따라 농·어촌이 황폐화되고 지역의 중심이 없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감과 교장 등의 자리가 축소되고 승진가산점 등이 상실되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 이렇듯 육성사업추진 전 단계의 문제점은 이해관계의 이익과 직접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집단에겐 손해나 이익의 집중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걱정규모화 후 문제점 : 폐교가 다수 발생되며, 폐교시설이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 이러한 폐교시설은 걱정규모화 단계에서 지역민의 상대적 상실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시설이나 지역민이 선호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됨.
 - 또한 걱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위하여 통합학교 시설의 개축이나 리모

델링 시 일시적인 통학환경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폐합 시 교육환경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끝으로 육성사업에 따른 폐교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저하되는 문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나 유치원 급의 통·폐합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폐합을 우선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각 지역의 구심점 역할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통·폐합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음.

2.3.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특징과 성과¹⁵

- 전원학교 육성사업은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립한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착수된 정책 사업
 - 2009년 110개의 면지역 학교를 전원학교로 지정하여 2011년까지 1,3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임연기, 정택희, 정현용, 히고 코우세이, 이지영, 김성창, 2014).
 - 전원학교 사업의 비전 : “학력이 우수하고,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 육성”
 - 비전의 실현을 위한 사업 중점은 첫째, 자연과 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둘째, 강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셋째, 우수 인력의 배치 활용, 넷째,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연계 축, 다섯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임.
- 임연기(2012)에 따른 전원학교 육성사업의 성과
 - 2010년 정부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 학교 대비 전원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낮고, 기초학력미달 감소폭이 큼
 - 해당 학교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
 - 학생 수 변화

15 임연기,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의 특징 및 성과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012년 30권 3호.

- 초등학교의 경우 다소 감소, 중학교는 증가하는 양상
- 면지역 학교의 학생 수 급감 추세 가운데 전원학교는 학생 수 감소폭 현저하게 낮음
- 초등학교의 40%, 중학교의 70%의 사업 대상 학교는 학생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함

○ 전원학교 육성사업의 특성

- ① 첫째, 전원학교 육성사업은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된 국가 재정지원 사업임.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업을 총괄 및 관리하면서 사업관리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컨설팅, 평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지원)청이 사업 단위학교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이에 전원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 ② 전원학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시설만 지원하는 시설형,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둘 모두를 지원하는 종합형 등으로 출발, 2010년 전원학교 확대 방안에 따라 통·폐합 본교 및 통합운영학교를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지원하였고, 2011년 사업성격의 유사성에 따라 사업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연중돌봄학교를 동일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였음. 즉 정부 지정형과 학교 공모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 ③ 전원학교의 출발은 농어촌에 도시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학력 우수학교를 육성 :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강한 프로그램의 운영, 우수 인력의 배치와 활용,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등을 추구. 특히 첨단 이러닝 교실 구축과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보급을 통하여 교육방법의 혁신을 시도하였음. 연중돌봄학교

사업과의 통합 이후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확충이 이루어졌고, 통·폐합 본교 그리고 통합운영학교가 지정형 전원학교로 운영되면서 전원학교의 다양화, 이질화 가속화됨

- ④ 전원학교의 주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모제를 중심으로 선정 : 지역과 학교 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면 소재 학교를 군단위 교육지원청이 추천하고, 시도교육청이 광역 차원의 교육 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를 심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모되었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검토하여 사업 학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 2009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유형에 따라, 2012년에 선정된 학교는 학교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었음.
- ⑤ 전원학교의 선정 조건은 면소재 학생 수 61명 이상 20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 지역 실정에 따라 예외 인정,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 권장 대상학교로서 학교 존립의 위기 요인이 있고, 201명 이상의 학교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점이 중시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2011년 전원학교의 한 유형으로 편입 운영된 연중돌봄학교는 인근 지역 2개 이상의 학교로 구성하되 사업학교의 학생 총수가 2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 수 조건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으나 통폐합 본교, 통합운영학교 등 지정형 전원학교도 61명 이상 200명 이하라는 학생 수 차원에서 학교규모의 조건이 요구되었음.
- 한편, 전원학교가 차츰 다양화되었지만 초기에 선정된 110개교는 1단계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의 잠정적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우선 종합형, 시설형, 프로그램 형별 전원학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설형이 가장 낮은 성과를 나타냈음. 장차 시설 중심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종합적 성과는 학업성취도, 학교만족도, 학생 수 변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음. 학업

성취도 수준에서 보면 전원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전반적으로 전국 학교보다 낮게 나타났음. 학교만족도 차원에서 보면 전원학교 학생의 학교 만족도는 연차별로 크게 향상되었음. 학생 수 변화 차원에서 보면 전원학교의 경우도 농어촌지역의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음. 다만 감소폭이 면지역 이하 전국 학교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초등학교의 40%, 중학교의 70%의 학교는 유지 또는 증가 양상을 보였음.

○ 전원학교 육성사업의 추진과 함께 부각된 쟁점

- ①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선별 대상에게 집중 제공되어야 하는지 : 전원학교와 함께 연중돌봄학교 등의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수록 지원 대상이 아닌 인근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음. 대표적으로 도시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기숙형 공립고 사업도 공모에 의해 선택적 혜택이 주어져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② 여러 재정지원 사업 과제들의 중복적 추진 : 전원학교 육성사업 추진 당시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사업으로 연중돌봄학교 사업, 방과후 학교 사업,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었음. 또한 도교육청별로 경기도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전남은 농촌교육 선진화 시범학교 육성사업, 경북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었음. 추진 이후에도 학력향상, 사교육 없는 학교, 영어교육, 교육정보화 등 내용별, 성격별로 추진되었음. 이와 더불어 타 부처의 관련 사업과 민간사업까지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연중돌봄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사업 간의 연계와 조정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지원 사업들의 중복 시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음.
- ③ 전원학교 육성사업이 한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추진됨 :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된 여타의 재정지원 사업들도 국고지원으로 추진된 후, 지방비로 이양되고, 그리고 시 도교육청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사업비를 책정하여 시행하는 경향이 있음. 전원학교는 초 중학교 수준에서 상당한 시설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를 염려하며 추진함.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이유도 사업비 지원 중단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됨.

○ 전원학교 운영과 관련된 향후 과제

- ①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모델을 재정립해야 함. 지정형 전원학교에 해당하는 통·폐합본교나 통합운영학교는 매우 특수한 학교로서 3년내지 5년간 착실한 정착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함. 공모형의 경우에도 스마트교육에 앞서가는 정보화 선도학교, 기숙형중학교가 등장하고 있고, 농촌유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음. 또한 귀농귀촌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학교들도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전원학교의 공통 운영모형을 공유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택적 특성화 운영모형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② 전원학교 재정지원 사업 기간을 3년 또는 3+1년에서 5년 또는 3+2년제로 조정해야 함. 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기간 동일학교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3년 지원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 3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학교에 한하여 2년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청 수준에서도 일부 학교에게 장기간 재정을 지원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여타의 학교로부터 민원을 유발하는 빌미가 되므로 전반기 3년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후반기 2년은 지방의 책임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청 대응자금을 50% 정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4. ‘작은학교교육연대’ 형성

2.4.1. 지역 학교 살리기 주민 운동

-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대응
 - 1994년에 시작된 경기도 가평군의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이 시초로 ‘지역의 학교 살리기’ 주민 운동 전개(장호순, 2003)
 -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단합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전개한 최초의 사건이었음(서길원, 2009: 278).
 - 두밀 분교는 교사 2명과 전교생이 25명이 전부였던 산골학교였음.
 -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논리로 내세웠던 경비절감과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반론 제기
 - 대통령에게 폐교 반대 진정서를 보냈고, 폐교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함 :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폐교를 막지는 못했음
 - 하지만 농촌학교의 현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음.
 - 도시지역의 학교교육 문제에만 집중하던 교사단체와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농촌 지역의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음.
 - 그 후 지역 주민들은 개별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는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를 1995년에 결성, ‘전원형 작은학교’¹⁶운동을 추진하며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응했으며, 이후에도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단결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활동은 지속되었음.

16 전원형 작은 학교란 도시 외곽 반경 10킬로미터 내외에 있는 농촌 초등학교에 해당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도시 학생들이 입학도 허용하는 학교를 말함(최중성, 2014). 도심학교와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고 전교생은 120명,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유지하고, 도시 학생들에게는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통학버스를 제공함

- 국가의 지원 없이 단순히 통·폐합을 저지하는 운동만으로는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2.4.2. 개별 학교 차원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 1994년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주민과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됨.
- 농어촌 주민들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확산됨.
- 학교 안에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됨
- 정부의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폐교 위기가 있던 남한산초등학교(경기도 광주시)가 그 출발점이 되었음.
- 그간의 운동이 지역 주민 중심의 방어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남한산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작은 학교 운동은 지역 주민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이 연대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었음(서길원, 2009: 278-279).
- 이 같은 움직임은 이후에 ‘전원형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거산초등학교, 2003년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사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을 통해 새로운 학교로 성장한 삼우초등학교, 프로젝트 학습과 문화예술교육을 특성화한 상주남부초등학교 등으로 연결되는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왔음. 이들 개별 학교들의 활성화 과정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경기 광주 남한산초등학교

- 남한산초등학교는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안에 위치한 학교임.
- 2000년 당시 남한산초등학교는 전교생 26명, 복식 3학급으로 폐교의 위기에 놓였었음.
- 주민과 교사들이 남한산초추진위원회를 구성,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을 모았음.

- 도시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학부모-교사 공동워크숍 및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였음.
- 2001년 3월, 마침내 전교생 103명, 6학급의 학교가 완성되었고, ‘참삶을 가꾸고 작고 아름다운 남한산초등학교’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새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음.
- 남한산초의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은 교육이념 및 철학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방법, 학교문화, 학생지도 등 모든 교육 영역에 녹아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철학이 분명한 학교를 추구 : 근본적으로 가치 있는 삶과 교육을 지향하고 자율과 자유, 그리고 창의적 삶을 살기 위한 아이들의 내적 발달을 추구.
 - 등교시간 숲산책 활동, 체험중심 교육과정, 프로젝트 학습, 블록수업제¹⁷, 주기집중형교육과정(여름·겨울방학 계절학교), 전교생 대부분이 참여하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이 교육철학의 바탕에서 추진됨
 -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 학교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적 절차와 행사성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학교 환경 또한 아이들이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아름답고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자율적 교사조직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교사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갈등과 조정을 통해 ‘수업’에 연계·집중된 ‘남한산 교육과정’을 마련
 - 학부모 동아리 및 자체활동, 학교의 수업 및 각종 행사 지원, 방과후 활동에의 자원봉사, 인문사회아카데미 등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학

17 블록수업제는 40분간 2개 교시에 해당하는 수업을 통합해 80분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간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 활동을 한 뒤 다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수업제도임. 80분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함께 이루어지고, 교육방법 또한 주로 체험 및 활동 위주의 수업을 실시하고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학생 개별 지도 등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짐(최종성, 2014).

부모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남한산초의 새로운 학교 만들기 사례는 ‘대안적 공교육 개혁’ 성공사례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많은 작은 학교들의 학교 개혁의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2)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 2002년에 아산 지역 글쓰기 모임을 하던 교사, 환경운동을 하던 시민들이 함께 모여 거산초를 일구었음.
- 2005년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
- 몸과 마음으로 배우는 체험학습, 텃밭가꾸기와 야생화키우기, 우포늪 탐방, 철새 탐조 기행과 같은 생태학습,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지향하는 문학교육을 통해 '전원형 작은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음.
-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교사연수를 실시하며, 교육과정 계획·실천·평가 일련의 과정에 학부모도 같이 참여
- 매년 여름·겨울 교사-학부모 동반 연수를 통해 거산초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 실시 : 교사-학부모 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으나,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 외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지역사회학교와는 동떨어진 모습 :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학교 건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3) 전북 완주 삼우초등학교

- 통·폐합 학교로 지정된 고산서초등학교에서 지역 주민과 일부 교원이 학교가 통·폐합되지 않도록 노력하던 중, 동일 지역(완주군 고산면 관내)의 통·폐합 대상학교였던 삼기초등학교 학부모와 결합, 전국 최초로 통·폐합 위기의 작은 학교끼리 자발적 통합을 하고 삼우초등학교로 개칭하고, 2003년 9

월에 학교 건물 전면 개축 방안 확정

- 삼우초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실천 활동을 통해 6학급, 학생 수 110여명에 이르렀음.
- 삼우초는 거산초와 남한산초의 사례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연사랑·인간사랑·문화사랑’이라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교육 철학과 함께 블록수업제, 프로젝트 학습, 돌봄교실, 계절학교 등을 통한 학생 중심적 교육과정과 마음담음 활동(명상),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한 자율적 학생문화 창조에 힘쓰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연계형 체험학습, 지역전통 문화 활동(풍물, 단오 맞이 한마당),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공간 개방 등을 통해 좀 더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사회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경북 상주남부초등학교

- 상주남부초는 2005년 경북 상주 지역 ‘참교육실천학교’ 모임 교사들이 상주 남부초를 프로젝트 학습과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시킨 사례임.
- 교사 및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을 계기로, 민족미술인협회 등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동아리 활동, 여름·가을 계절학교, 예술제 등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특히 특기적성교육과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된 ‘일-놀이-배움이 어우러진 온종일학교’, 토요 체험학습, 계절학교 등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학습, 체험중심 학습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일도 놀이처럼 공부도 놀이처럼’ 하도록 유도함.
- 학교가 아이들의 행복한 삶터가 되는 것을 꿈꾸는 ‘참삶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를 지향함.
- 학교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외부 환경 조성, 아이들과의 세세한 갈등을 해결하는 일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의 참여 권장

2.4.3. ‘작은학교교육연대’의 결성

- 2005년 ‘작은학교교육연대’라는 모임 결성
- 작은 학교가 새로운 학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모임임.
- 작은 학교의 교육과 학교 개혁의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실천가들의 모임으로써 공동체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간 연대와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한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들은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와 학교개혁의 실천적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 것을 지향하고 있음. 이는 학교를 새롭게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모델의 정립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찾아간다는 의미임.
- 이들 교사모임은 작은학교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교육과정에서의 협동적 작업으로 인식하면서 지역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¹⁸

[작은 학교의 과제]

- ① 비교육적 학교문화를 타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일
 - ② 작은 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천활동을 하는 일
 - ③ 지역사회와 학교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일
 - ④ 작은 학교 회원학교 간의 연대와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 작은학교교육연대는 조직과 활동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회원은 개인 및 학교 등을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

¹⁸ 작은학교 교육연대 홈페이지(<http://www.smallschool.net/home001>) 참조

- 학교가 회원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신청서 제출과 함께 학교 사례 발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선발
-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가 회원인 경우는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정보의 공유, 협력과 도움주기, 지역별 연대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회원 학교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활동은 학교 개혁의 실천적 운동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확산하는 것임.
 - 교육의 이념과 사례 공유, 워크숍, 세미나와 같은 집단적인 학습 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됨.
 - 이러한 활동들은 여름, 겨울 1년에 두 번 있는 작은학교 교육연대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근 지역 교사 혹은 전국 단위 회원학교 교사들과 교류를 통해서 지속성을 갖게 됨.
 - 작은학교교육연대의 실천 활동들은 개별학교에서 적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회원들이 집단적 학습을 통해 공유된 교육 이념과 과정, 방법 등을 실천 현장의 학교 개혁 운동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 작은 학교교육연대 스스로가 말하는 단체가 추구하는 학교개혁운동은 다음과 같음(<http://www.smallschool.net/home001>).
 - ① 실천적 학교개혁 운동을 통해 미래 교육의 답을 찾음.
 - ② 소외된 곳으로부터 학교 교육의 희망을 다시 찾음.
 - ③ 거점학교에서 성공적 사례를 개발하고 네트워크 운동을 확산함.
 - ④ 공립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개혁 모델을 개발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찾아감.
 - ⑤ 교사들의 자발적인 공동 실천과 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감.

2.4.4. 작은학교(소규모공동체학교)의 성공 요인

- 작은학교교육연대의 두 가지의 현상을 통해 살펴보는 성장한 모습
 - ① 작은학교교육연대의 작은 학교 활성화 사례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작은학교교육연대의 회원 학교 및 모임 구성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초기에는 앞에서 검토하였던 네 개 학교가 개별적인 움직임에서 출발했던 작은학교교육연대는 전국의 18개 회원교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2006년 부산교육연구소 소속의 초등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예술학교를 일궈낸 부산 금성초를 시작으로, 양평의 조현초, 세월초, 전남 순천의 별량초 송산분교, 경기도 용인의 두창초, 경기도 양평의 서종초 정배분교, 수입초, 강원도 강릉의 운양초, 전남 구례의 토지초, 안동 송천초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처럼 작은 학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과 교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② 둘째로, 이처럼 양적 성장과 함께 지역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질적 성장도 일구어 냄. 작은학교 살리기 활동을 필두로 지역연계형 교육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교육 이념, 교육과정 및 방법이나 방과후교육 등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작은학교 살리기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동반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북 진안 고산면 지역의 경우는 삼우초의 활성화사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삼우초처럼 만족도 높은 교육이 고산지역 전체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행정기관, 교사, 학생,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고산향교육공동체’라는 단체를 만들었음. 이 단체는 주민 요구조사를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 및 전략을 세우고, 지역 정체성이 녹아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노력중임. 즉 단순한 지역 교육협의회를 넘어선

교육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음. 이러한 지역 연계형 교육공동체 형성의 사례는 향후 작은학교교육연대의 활동 또한 지역 중심의, 지역을 위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시사함.

○ 작은학교교육연대의 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사들의 활동 양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음(양병찬 외, 2012; 최중성, 2014).

① 근본적으로 교육의 이념과 철학이 내재된 작은 학교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음. 우선 ‘작아서 교육적’이라는 이념으로, 작은 학교가 갖는 환경적인 소중함을 가꾸고, 건강한 학교 문화 형성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지향함. 이는 정부의 ‘작아서 비교육적’이라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임. 그리고 학생의 내발적 성장과 학생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공동체적 교육을 지향함. 이 같은 교육의 이념과 철학이 개별 학교 차원에서 실천될 때,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이념과 철학으로 구체화됨. 그리고 주민과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됨.

② 특성화 교육과정 및 방법 등이 개발·적용되어 교육철학을 실천하게 됨. 소규모 맞춤형 개별 지도, 프로젝트 학습, 블록수업제¹⁹, 지역 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 방과후학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은 현장에서 실천을 분석함으로써 자신들의 고민을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개별 학교 차원에서도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사 간의 자체적인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 이 같은 활동들은 자발적인 교사들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실행되며, 작은학교교육연대의 실천적 활동을 이끌

19 블록수업제는 40분간 2개 교시에 해당하는 수업을 통합해 80분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간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 활동을 한 뒤 다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수업제도임. 블록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방법 또한 체험 및 활동 위주의 수업을 실시하여,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학생 개별 지도 등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음(최중성, 2014).

어가는 초석이 됨.

- ③ 정기 모임에 참석한 교사들 전체가 분과별 토의와 토론을 통해 소통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함. 이처럼 지속적인 작은학교교육연대의 실천 활동들을 통해서 활성화 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고 이슈가 되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음. 더불어 중앙 및 지방 정부, 교육청 등 공적 주체들도 농어촌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들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음.

제 3 장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실태 분석

1. 분석영역

-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 교육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의 실태와 수준 분석(임현정, 김양분, 신혜숙, 신종호, 이광현, 2011)”과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김양분, 남궁지영, 김정민, 박경호, 임현정, 2014)”의 통계 데이터 재분석
 - “초등학교 교육의 실태와 수준 분석”은 2005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상의 조사로 종단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며, 본 절에서는 2011년 통계 결과를 활용
 -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는 본격적인 종단연구의 첫해 조사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의 조사임.
 - 상기 조사에서 지역 구분은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도서벽지로 구분하여 실시된 자료임. 따라서 평균점수는 전국단위의 평균점수로 볼 수 있음.
 - 원 자료를 재분석하여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눠 농어촌지역을 살펴 보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실태분석 영역을 학교운영,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생 및 학부모, 교원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각 영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표 3-1>와 같음.

표 3-1. 초등학교 교육실태 분석영역

영역		하위영역		
학교 운영	학교현황	시설 현황	학생 1인당 교수-학습 공간 면적 학교당 학급수	
		학생 및 교원 현황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사경력 현황	교직 경력 석사 졸업 이상 교사 비율	
	학교경영	중점교육목표		
		학교운영방식	기존 제도 관행 수정 교사들의 의견반영 교사들의 업무 경감 노력	
		교수-학습지원	교수-학습지원, 학습부진아 지원	
	교육여건	학교발전 저해 요인 정도		
교육활동 관련 협동				
교육 환경	학교 만족도	학생 만족도	인간관계, 학교생활, 학업	
		학부모 만족도	학교교육, 학교운영	
		교사 만족도		
	사회 심리적 환경	협력적 학습 문화		
		경쟁적 학습 문화		
		학업자아개념		
		내재적/외재적 학습동기		
		교과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친구와의 관계		
		학교 내 폭력 정도		
		자신의 폭력피해 경험		
		비행·일탈		

영역		하위영역	
	비인적 교육환경	자아개념	사회, 학업, 가족, 신체
		공동체 의식	참여의식 타인 배려
		인성	친절·양보, 책임·협동, 규칙준수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이웃/친구와의 관계
		진로성숙도	자기이해/진로계획성/미래핵심역량
		교육 기대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
교수 학습	수업활동	학습태도(끈기)	
		수업집중시간	
		학교 수업 태도	
		수업분위기	
		교수자 중심 수업	
		학습자 중심 수업	
	교사의 학업적 지원		
학업성취도	국어, 영어, 수학		
학생 및 학부모	학생 활동과 시간 활용	학생 활동	독서 향유 정도 봉사활동 경험 여부,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시간 활용	자기주도 학습시간 운동 시간 컴퓨터 사용시간(학습,여가), 휴대폰 사용시간
	학생의 가정 배경	한부모 가정 비율 부모의 학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문화적 활동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학업지원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 비율	
교원	학생인식	교사의 사기와 열의 교사-학생 간 관계	
	학교풍토	교사 열의, 교사의 자율성 교수 효능감 생활지도 효능감 교직 만족도	

2. 분석결과²⁰

2.1. 학교운영

2.1.1. 학교현황

- 학교현황 분석은 시설현황, 학생 및 교원현황, 교원경력 등을 분석함
 - 시설현황 중 학생 1인당 교수학습공간은 면적은 도시가 4.30㎡인데 비하여 약 4배정도 큰 16.26㎡으로 나타남
 - 학교당 학급수는 도시가 30학급 정도이나 읍·면지역은 도시대비 1/3수준인 12학급미만으로 나타남
 - 학급당 학생 수는 도시가 25명 정도이나 읍·면지역은 1/2수준인 12명 미만으로 나타남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도시가 20명 미만이나 읍·면은 1/2수준인 10명 미만으로 나타남
 - 대체로 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의 시설 및 교원현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학생 수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교원경력의 경우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약 1년 정도 높은 수준이며 석사이상 교사비율도 읍·면지역이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 교사들의 경력 및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학교현황 분석결과, 일반적인 시설이나 교원의 절대적인 수준은 도시와 읍·면지역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 본 절에서 제시한 비교분석 표에서 “<”, “>” 등은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적 유의성을 반영하여 표기한 것으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분석결과는 [부록 1] 참조.

표 3-2. 초등학교 학교현황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시설 현황	학생 1인당 교수·학습 공간 면적	3.41~4.30	<	11.17~16.26
	학교당 학급 수	26.98~33.83	>	6.33~11.05
학생 및 교원현황	학급당 학생 수	24.71~26.70	>	9.34~14.49
	교원 1인당 학생 수	17.76~19.52	>	6.03~9.74
교원 경력	교직 경력	15.31~16.33	<	16.41~16.83
	석사 졸업 이상 교사 비율	22.68~29.73	<	32.65~45.69

2.1.2. 학교경영

- 학교경영에 대한 분석은 학교장의 학교경영 시 중점교육목표, 학교운영방식, 교수학습지원 등에 대하여 분석
 - 중점교육목표의 경우는 도시 및 읍·면지역 모두 올바른 인격형성이 가장 중점인 교육목표이나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비중이 높음
 - 학력의 경우도 도시지역이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이 우선시 된다면 읍·면지역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도달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학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읍·면지역에서는 도시보다 인격형성이 보다 강조됨
- 학교운영방식은 모두 기존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며, 교사들의 의견반영의 경우도 모두 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교사들의 업무경감노력은 도시 및 읍·면지역 모두 경감 노력함
 - 교수학습지원의 경우는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의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학습부진아지원의 경우는 방과 후 담임교사의 사가지도가 가장 높았음. 그러나 학습부진아 지원의 경우 읍·면지역이 담임교사의 사가지도 의존도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도시지역이 보조교사

나 별도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지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 초등학교 학교경영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중점교육목표	-	학력중심	≠	기초학력도달
학교운영방식	기존 제도 관행 수정	4.26	=	4.13
	교사들의 의견반영	4.46	=	4.61
	교사들의 업무 경감 노력	4.64	=	4.56
교수-학습지원	교수-학습지원	3.95	<	4.12
	학습부진아 지원	별도시스템	≠	담임교사지도

2.1.3. 교육여건

○ 교육여건에 대한 분석은 학교발전 저해요인, 교육활동 관련 협동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학교 발전 저해 요인 : 정부 또는 교육청의 규제와 외부지원의 부족 등
-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됨
-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료 교사와 협동하는 정도 : 높음
- 직무에 대한 협력은 지역이나 교원 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3-4. 초등학교 교육여건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교육여건	학교발전 저해 요인(열악한 지역환경)	1.75	<	1.93
	교육활동 관련 교사 간 협동	4.05	=	4.03

2.2. 교육환경

2.2.1. 학교만족도

- 학교에 대한 만족도 :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해 분석
 - 학생 : 인간관계만족도는 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높고, 학업만족도는 두 지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부모 만족도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 만족도는 지역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5. 초등학교 학교만족도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학생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3.48	>	3.40
	학교생활 만족도	3.82	=	3.73
	학업 만족도	3.38	=	3.38
학부모 만족도	학교교육 만족도	3.49	<	3.59
	학교운영 만족도	3.45	<	3.53
교사 만족도	-	3.71	=	3.74

2.2.2. 사회·심리적 환경

-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 심리적 환경은 학습문화, 학습동기, 교우관계, 학교 내 생활 등을 분석
 - 전반적인 학습문화 우수성과 학업에 대한 열의는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동기에 있어 내재적 동기는 지역 간 차이나 나타나지 않았으나, 읍·면지역은 외적인 동인에 의해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음.

- 교과에 대한 흥미 :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도시지역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아개념 :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떨어짐.
 - 교우관계 :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교 폭력에 있어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음.

표 3-6. 초등학교 사회·심리적 환경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사회·심리적 환경	협력적 학습 문화	3.48	>	3.45
	경쟁적 학습 문화	3.49	>	3.36
	학업자아개념	3.87	>	3.71
	내재적 학습동기	2.77	=	2.71
	외재적 학습동기	1.75	<	1.81
	교과 자아개념	3.18	>	3.06
	자아존중감	3.58	=	3.52
	친구와의 관계	3.80	>	3.68
	학교 내 폭력 정도	2.49	=	2.51
	자신의 폭력피해 경험	1.40	<	1.44
	비행·일탈	1.49	=	1.48

2.2.3. 비인지적인 교육환경

- 비인지적인 교육환경 : 학생들의 자아개념²¹, 공동체의식, 인성, 다문화수용성, 진로성숙도와 학부모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대도 등을 분석
 - 학생의 자아개념은 도시가 읍·면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특히 가족에 대한 자아개념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읍·면보다 0.1이상 차이가

21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와 신념을 의미함(김양분 외, 2014).

-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과 인성도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낮음
- 다문화수용성도 도시지역이 읍·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읍·면지역의 다문화가정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하여 의식수준은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진로성숙도, 학생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포부수준 모두 읍·면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모들의 자녀 진학에 대해서 도시와 읍·면 모두 4년제 대학까지 입학하기 희망했으나 읍·면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대학원 이상의 과정에 대한 선호도는 낮고, 전문대학 선호도는 높았음
 - 비인지적인 교육환경은 대부분 항목에서 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수준도 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났음.

표 3-7. 초등학교 비인지적 교육환경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자아개념	사회	4.20	>	4.09
	학업	3.87	>	3.71
	가족	4.39	=	4.38
	신체	3.56	>	3.43
공동체 의식	참여의식	3.96	>	3.82
	타인배려	3.81	>	3.69
인성	친절·양보	3.52	>	3.45
	책임·협동	3.79	=	3.72
	규칙준수	4.05	>	3.92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이웃/친구와의 관계	4.09	>	3.97
진로성숙도	자기이해	4.19	>	4.08
	진로계획성	3.97	>	3.88
	미래핵심역량	3.38	>	3.28
교육기대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16.14	>	15.46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	-		-

2.3. 교수학습

2.3.1. 수업활동만족도

- 수업활동에 대한 분석은 학습태도, 수업분위기, 교사 학업지원 등을 분석하였음. 도시지역 초등학생이 읍·면지역보다 학습태도(근기) 수업집중시간, 학교수업태도가 수업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8. 초등학교 수업활동 만족도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수업활동	학습태도(근기)	3.22	>	3.10
	수업집중시간	2.99	>	2.90
	학교수업태도	3.18	>	3.03
	수업분위기	3.49	=	3.51
	교수자 중심 수업	3.73	=	3.65
	학습자 중심 수업	3.37	=	3.32
	교사의 학업적 지원	3.49	=	3.51

2.3.2. 학업성취도

-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능력검사 평균점수 비교 결과, 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국어에서는 3점, 영어 10점, 수학 6점 정도의 차이로 영어교과에 대한 도농간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9.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학업성취도	국어	198.96	>	195.32
	영어	202.17	>	192.23
	수학	200.98	>	194.33

2.4. 학생 및 학부모

2.4.1. 학생활동과 시간활용

- 학생들의 학교 및 방과 후 활동 및 시간활용 분석 결과, 독서시간과 봉사활동 그리고 학습시간 모두 도시지역이 읍·면지역 보다 높게 나타남.
 - 수업시간 이외 운동시간도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았음.
 -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시간은 읍·면지역이 전체적으로 높았음.
 - 컴퓨터 활용면에서 학습 시 사용은 도시, 여가시간 사용은 읍·면이 높음 : 읍·면지역에 여가활동이나 놀이 관련 시설 부족 때문으로 판단됨.

표 3-10. 초등학교 학생활동과 시간활용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학생 활동	독서 향유 정도	3.42	=	3.35
	봉사활동 경험 여부	-		-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3.52	>	3.36
시간 활용	공부 활동 시간	2.05	>	1.71
	운동시간	2.69	>	2.46
	컴퓨터 사용시간(전체)	0.95	=	0.97
	컴퓨터 사용시간(학습)	2.40	>	2.30
	컴퓨터 사용시간(여가)	2.59	<	2.68
	휴대폰 사용시간	1.61	=	1.69

2.4.2 학생의 가정배경

- 학생의 가정배경은 한부모 가정 비율, 부모학력 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분석
 - 한부모 가정 비율은 읍·면이 도시보다 약 4% 높게 나타났음.

- 부모의 학력은 도시지역의 대졸비중이 26~34%인데 비하여 읍·면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도시지역이 7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학생의 가정배경은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우수

표 3-11. 초등학교 학생 가정환경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한부모 가정 비율	9.3~9.4%	<	13.6%
부모의 학력(대졸 비중)	26~34%	>	9.7%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47.39	>	40.06

2.4.3 가정교육환경

-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은 문화적 활동,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의 학업 지원, 사교육 참여 비율 등을 분석
 - 모든 항목에서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월평균 사교육 참여비율이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약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초등학교 가정교육환경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문화적 활동	1.78	>	1.69	
부모-자녀 상호작용	사회문화	2.73	>	2.53
	가족관계	5.39	>	5.27
부모의 학업지원	3.45	>	3.32	
월평균사교육참여율	42.0~42.7	>	15.3	
사교육 참여 비율	81.84~84.38	>	79.53	

2.5. 교원

2.5.1. 학생인식

- 학생들의 교원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열의, 학생과의 관계 등을 분석 : 열의, 학생과의 관계 모두 도시지역이 읍·면지역 보다 다소 높음

표 3-13. 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학생인식도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학생인식	교사의 열의	4.24	>	4.17
	교사-학생 간 관계	3.95	>	3.81

2.5.2. 학교풍토

- 교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풍토는 교사열의, 교사 자율성, 교사의 효능감, 교직 만족도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교사열의의 경우 읍·면지역이 높고,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교사들의 효능감은 교수학습에서는 도시가 생활지도에서는 읍·면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직생활의 만족도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음.

표 3-14. 초등학교 학교풍토에 대한 교사인식 비교분석

구분		도 시		읍 면
학교 풍토	교사의 열의	3.89	<	4.02
	교사의 자율성	3.95	<	4.03
	교수 효능감	4.07	=	4.03
	생활지도 효능감	3.81	=	3.82
	교직 만족도	3.89	<	3.99

3. 소결

- 도시지역 대비 농어촌 초등학교의 교육 실태 분석 결과
- 학교운영
 - 전반적인 학교규모는 읍·면지역이 작으나 학생 1인당 면적은 읍·면지역이 넓음
 - 학급당 학생 수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약 1/3수준정도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읍·면지역이 1/3수준
 - 교원경력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수준
 - 농어촌 학교는 도시지역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중점교육목표
 - 학교운영측면에서 전반적인 경향은 도시와 읍·면 간 차이가 없음
 - 읍·면지역은 기초학력위주로 도시지역은 자기주도학습 위주로 진행, 즉 읍·면지역은 절대적인 학업성적의 고취를 도시지역은 학생 개개인의 상대적인 학업성적 고취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수학습 지원
 -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은 도시지역이 담임교사지도 외 보조교사, 방과 후 수업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비하여 읍·면지역은 담임교사 지도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도 향상 면에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여건 중 학교발전 저해요인은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 더 많음

- 교사들의 직무 관련 동료 간 협력은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직무에 대한 협력은 교원 수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학교에 대한 만족도 : 학생과 학부모의 응답이 상이
 - 도시지역 학생의 인간관계만족도가 읍·면지역 학생 대비 높음
 - 학부모는 도시 대비 읍·면지역 만족도가 더 높았음.
- 사회심리적 환경
 - 도시지역이 학습문화와 학습 동기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읍·면지역은 외재적인 요인에 의한 학습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교우관계에 있어서 도시지역 초등학생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학교폭력에서도 읍·면지역이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어촌지역의 학생이 학부모의 무관심, 학교 외 학습 공간 부족 등 사회심리적 환경이 도시지역의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음.
- 비인지적 교육환경
 - 공동체의식, 인성적 측면, 진로성숙도, 학부모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도 읍·면지역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 관련 영역
 -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나 수업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수업태도나 주의집중시간 및 학습을 위한 끈기 수준이 도시 대비 읍·면지역 초등학생이 떨어짐.
 - 학업성취도에서는 영어와 수학과 같이 개인의 역량 및 사교육 등의 영향이 큰 부분에서 읍·면과 도시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학생활동 및 시간활용 영역에서도 도시지역의 공부 활동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읍·면지역 학생의 운동시간이 도시지역보다 적었으며,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배경

- 읍·면지역이 한부모 가정 비중이 더 높음
- 읍·면지역이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
- 읍·면지역 가정의 문화적인 활동이 도시 가정 대비 더 적었으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도시가 읍·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학업지원과 사교육참여율에서 도시지역이 높았으며, 월 평균 사교육 참여율에서 읍·면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한 열의가 낮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학생들의 교원에 대한 인식

- 교사들의 학교에 대한 풍토인식에 있어서 읍·면지역이 더 긍정적인데 반해, 학생들의 교원에 대한 인식은 도시지역이 더 긍정적이었음

○ 초등학교의 교육 실태 분석 결과 농어촌 학생들의 학업과 사회적 능력 등이 도시지역보다 낮은 이유

- 농어촌지역이 학교시설이나 교원의 능력에는 차이는 없고, 가정환경과 지역적 특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제 4 장

농어촌 초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위한 면담 분석

1. 조사개요

- 읍·면지역 학교의 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1차 전문가협의회는 경기권에 위치한 5개교의 교장 및 교사 5명으로 구성, 기존 연구를 통해 밝힌 농어촌 교육 문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 2차 전문가협의회는 경기도 지역의 활성화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5개교의 교장 및 교사 5명과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
 - 3차 전문가협의회는 전북지역 면소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해당학교 교장 및 교사 3인과 제시된 방안에 대한 지역별 적용 가능성 및 적절성을 검토.

1.1. 참여자들의 특성

- 협의회는 참여자는 2005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학교운동의 역할을 담당해온 「작은학교연대」 회원 학교의 교직원(교장, 교사)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10명으로 구성함.
- 연구 참여자는 모든 현직 교원(교장3명, 교사 7명)으로 구성되었음. 회차별 연구 참여자들의 소속은 다음과 같음.
 - 1차: 남한산초등학교, 세월초등학교, 정배초등학교, 대월초등학교, 두창초등학교 교직원 총 5명
 - 2차: 남한산초등학교, 대월초등학교, 정배초등학교(2명), 두창초등학교, 조현초등학교 교직원 총 6명(참여자는 1차와 중복, 신규 참여자1명)
 - 3차: 삼우초등학교 교직원 총 4명

1.2. 연구방법

- 협의회는 ‘농어촌 초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형식으로 진행
- 연구진은 참여자들에게 논의할 내용을 1주일 전에 메일로 송부하여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문은 개방형으로 참여자들의 모든 의견을 수용
- 협의회는 특성상 즉시 기록이 불가능하여 참여자의 구두 동의 후 논의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1명의 연구자가 전체내용을 녹취 후 기록

1.3. 질문내용

- 협의회 최종 목표는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크게 6가지 영역
 - ① 학교 운영(제도 및 정책, 예산, 인력, 행정, 연계, 복지)
 - ② 여건(교육 여건, 문화 여건, 가정 여건, 근무여건)
 - ③ 작은학교(성공요인, 사교육, 프로그램)
 - ④ 넷째는 학생·학부모(학업성취도, 심리적 특성)
 - ⑤ 다섯째는 교원(철학 및 인식, 교수학습활동)
 - ⑥ 여섯째는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인사정책, 적정 학생 수)

표 4-1. 협의회 질문내용

대영역	소영역
· 학교 운영	· 제도 및 정책, 예산, 인력, 행정, 연계, 복지
· 여건	· 교육 여건, 문화 여건, 가정 여건, 근무여건
· 작은학교	· 성공요인, 사교육, 프로그램
· 학생·학부모	· 학업성취도, 심리적 특성
· 교원	· 철학 및 인식, 교수학습활동
· 대안	· 인사정책, 적정 학생 수

2. 조사결과²²

2.1. 학교 운영

- 참여자들은 농어촌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정책을 기반 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예산을 지원할 때도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 해주어야 함을 주장함.
- 농어촌학교에는 기초학력 및 학습지도를 도와줄 보조교사인력이 필요하며, 이런 인력은 교육부가 아닌 농림부에서 일정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행정실무사를 도입한 이후 교사들의 행정업무부담은 줄었으나, 도시학교에 행정실무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학생 수가 적은 시골학교에는 적게 배치함으로써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함.
- 농어촌학교는 차량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필요한데, 복지 혜택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아쉬워하였음.

2.2. 여건

- 참여자들은 학교가 발전함에 따라 가급적이면 학교근처에 거주하기 위해 이주를 하려고 하고 있음.
- 열악한 농어촌학교의 교육·문화·가정여건을 향상시키려면 인근지역의 문화예술인력 등을 가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함.

²² 해당 항목별 인터뷰 내용 원문은 [부록 2] 참조.

2.3. 작은학교 교육

- 참여자들은 작은학교가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 학교를 변화시켜야한다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교육과정, 교수 방법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를 감동시켰으며, 이러한 감동이 해당 학교 뿐만 아니라 인근학교,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함.
 - 교사가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임을 설명하였음.

2.4. 학생·학부모

-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이 시급함.
- 농어촌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한 열등감과 도시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패배의식이 존재함을 걱정함.
- 작은학교연대로 인해 학교가 변화하면서 학부모가 학교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상생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설명함.

2.5. 교원

- 작은학교연대 회원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교사로서 꿈꾸는 진정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을 구안하고 있음.
- 특정 교수학습활동이 성공적이려면 적어도 몇 년 동안 교사가 바뀌지 않고

수업할 수 있어야하며, 예산 등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주어져야함을 주장하였음.

2.6. 대안

- 모든 학교가 동일한 규모이어야 할 이유가 없음.
 - 교육부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적정학교규모를 정하고 학생 수가 60명이하이면 폐교를 하는 것이 부당함 지적.
- 농어촌지역의 근무가산점제도가 악용되고 있어서, 시골지역이 좋아서 근무하고자 하는 교사들마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
 - 참여자들은 작은학교는 내부공모제를 도입하여 농어촌학교에 맞는 교장을 선발하고 있으며, 시골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를 승진시키거나 교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함.
 - 교실 한 칸의 교육 가능 학생 수인 12~15명을 위한 교실은 남겨놓되, 유휴 학교시설을 양로원이나 보건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가 폐교되지는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함.

3. 소결

3.1. 소규모 학교 성공 요인

- 소규모 학교 성공사례의 공통 요인으로 교사의 헌신과 열정,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 소통 및 지역자원 활용,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 및 학교 운영, 공동체 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음.

3.1.1. 교사의 헌신과 열정

-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폐합의 위기에 직면했던 소규모 학교들이 전입 문의가 쇠도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며, 입학생을 불가피하게 추천하게 하도록 했던 성공의 비결은 교사의 헌신과 열정이었음.
- 교사의 헌신과 열정은 조현초등학교와 같이 공모제를 통하여 부임된 공모 교장의 비전을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 발현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삼우초등학교처럼 교사들이 뜻이 맞는 동료 교사나 학부모, 혹은 시민단체와 결합하면서 학교를 새롭게 세우고 만들어갔음.
- 교사의 헌신과 열정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담당하였음.

3.1.2. 학부모의 지원

- 학부모는 학교를 재편성하는 준비과정에서는 갈등의 소인이 되기도 하였음.
 - 학구 학부모와 전입 학부모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교사갈등이 나타나기도 했음.
 - 갈등과정에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학구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

는 경우도 극소수 있었으나 대체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감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신뢰는 학교의 성공에 큰 밑거름으로 작용했음.

-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주도하기보다는 교사들의 지지자 역할을 담당하였음.
- 학부모의 역할과 지원은 통·폐합 예정 학교의 시설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소규모 학교 성공의 지원군이었음.
 - 교육활동 일손을 메우는 일
 - 낡은 학교를 청소하고 일
 -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의 학습 보조
 - 부족한 교사대체인력
 - 학생들, 교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는 학부모 지원 등
- 거산초등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지원단’은 체험학습 지원, 학생자율동아리, 학습활동지원, 생활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3.1.3. 지역자원 활용

- 금성초등학교, 남한산초등학교 등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였음.
 - 이들 학교들은 부산의 금정산 자락과 남한산성을 터전으로 농어촌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학습과 노작활동을 통하여 현지 적응적 교육을 실현하였음.
-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의 가정환경으로 농어촌지역에 위치하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될 수밖에 없는 문화향유를 지역 전문가와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해소하려 노력하였음.

3.1.4. 민주적 의사결정과 학교 운영

- 성공사례의 소규모 학교들은 학교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안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민주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 이들 학교는 거산초등학교처럼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공동 참여하는 회의를 통하여 학교의 중요한 의제를 결정함.
 - 관리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학교 주체가 되는 교사와 학부모 스스로 결정하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으로 규정된 거산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공식화하는 것임.
- 100여명 안팎의 학생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협의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임.
 - 다양한 연령, 사고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진행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말처럼 쉽지 않음.
 - 학교를 새롭게 설계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함.
 -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학교를 살리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론 절차와 의사조율과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진통으로 내재화되며,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같이 수용·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의 실현이 가능해졌음.

3.1.5. 공동체 정신과 교육주체의 자발성

- 교사가 ‘내 학생만 잘하면 된다’ 또는 ‘우리 학교 학생만 잘하면 된다’던지, ‘내 과목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생각은 학교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기주의적 사고임.

- ‘나만’에서 벗어나서 ‘모두 다같이’ 잘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들은 각종 학교 봉사활동 혹은 교육활동보조라는 미명하에 학교행사에 참여하는데 그 이유가 교사가 본인의 자녀를 다른 학생보다 좀 더 신경써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지만, 학생 수 100여명밖에 안되는 소규모학교에서는 ‘나’만의 자녀가 없으며 ‘모두’의 자녀로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금성초등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꽃씨앗학교’에 지정 공모하여 4년 동안 4억을 지원받은 사실과 상조남부초등학교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에 공모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농어촌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공모를 통해 만회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 및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려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 모두가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합심해도 학교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
 - 학교와 교육청과의 갈등
 - 교사와 관리자와의 의견대립
 - 교사와 교사사이의 갈등
 - 학부모와 교사와의 갈등 등
- 무수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음.

3.1.6. 소규모 학교 자체 특성

- 대규모 학교는 집단의 교육적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고,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 아닌 학교가 될 수밖에 없음.

- 소규모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주체가 됨에 따라 대규모 학교에 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적 요구를 보다 쉽게 관철시킬 수 있음.
 - 소규모학교의 교육주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이 대규모 학교에 비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적으므로 교장선생님이 모든 학생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의 관계가 대규모학교에 비해 친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전교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모두 함께 참여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었음.

3.2.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성공의 조건

- 소규모 학교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교육 내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
 - ① 지속가능한 교사 수급
 -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를 새롭게 개조한 핵심 주체는 교사들임.
 - 교육주체들이 합의하고 의도한 학교 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함.
 - 각종 교사모임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 상에 맞는 교사들을 길러내는 일이 필요함.
 - 학교에 필요한 적절한 교사를 찾은 경우 해당 교사를 학교로 초빙할 수 있어야 함.

② 학교상, 학생상, 학부모상에 동의하는 교직원

- 교감,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여야 함.

③ 전입 학부모와 학구(지역)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 통·폐합 위기의 소규모 학교 주체들은 학부모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새로 전입한 학부모들이 설명회를 통하여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와 새로 전입한 학생이 일정한 규모에 이르는 경우, 전입 학부모와 학구 학부모간의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

④ 동문회,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존 학부모와의 비전 공유

- 일단 학생이 다닐 학교가 정해지면, 학교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동문회의 협조가 필수임.
- 학교관계자들은 학부모들과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을 공유하기 위하여 각종 설명회, 토론모임, 학습모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함.

제 5 장

정책제안

1. 정책제안

1.1. 농어촌 학교 보존에 대한 배려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음. 그런 가운데 고향인 농어촌을 떠나겠다는 30대 이하의 주민이 30%를 넘고, 떠나려는 이유 가운데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큰 이농 이유가 되고 있음.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이농을 하게 된다면 농어촌의 황폐화가 가속될 것임. 농어촌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적정규모학교를 통한 학업성취도 제고와 사회성 및 인격 형성, 다양한 교육활동의 제공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보완이 필요함.

국가 미래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의 공존이 필요하다면 농어촌 주민들이 자녀의 교육(특히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이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

입.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이 통학할 수 있는 농어촌과 벽지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분교장의 형태로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소규모 학교, 분교장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2.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농어촌 학교 구축

다양한 문화, 복지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학교의 유무는 도시와 달리 학부모인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자부심과 애향심까지 연계된 상징성을 지님. 초등학교가 농어촌지역에서는 교육기관 이상의 주민의 삶과 정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의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을 넘어서 지역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교 시설 공유, 교육에 대한 학부모 외에도 지역주민의 참여 등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함. 예컨대, 학교를 문화복합시설로 구성하여 학교에 함께 두어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한다든가, 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1.3. 소규모 학교 운영 여건 개선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 특히 면지역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소규모 학교는 강사섭외와 외부 강사를 위한 수당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과후학교 등을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의 협력이 필요함. 외부의 협력은 자구노력과 병행되어 진행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을 위해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학교에서는 지자체와 타 부처 및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1.4. 교사의 적극적 역할 유도

학생 1인당 교육 공간, 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학교 내 물리적 환경은 농어촌 학교가 도시보다 우수한 반면,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있어서는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지원,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등에 있어서는 열악함. 가정에서의 지원 부족은 학생의 개인적인 포부 수준까지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가정배경이 지닌 약점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 복지 차원에서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 기능이 추가된 교육-돌봄 체제(edu-caring system)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상담의 강화, 학부모 상담과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함.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은 수업태도 뿐만 아니라 각종 정서적·심리적 요인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상담의 강화, 학부모 상담과 교육 지원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학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 그리고 교육활동 요인은 학교장, 교사의 노력을 통해 개선 내지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교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지역적 특색과 소규모 학교가 지닌 강점을 활용한 교육과정의 특성화, 맞춤형 개별 지도, 프로젝트 학습, 블록수업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은 농어촌 학교가 활성화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교사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근무 교사들에 대한 연수, 상호 컨설팅 등 소규모 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지원체제의 강화를 통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교사의 양성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와 교육 결과의 개선의 터전이 될 것임.

1.5. 방과 후 시간 활용 방안 마련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의 방과 후 가정에서의 시간 활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도시 대비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으며, 주변에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들도 적은 농어촌 초등학생은 자연스럽게 학습시간도 적고, 여가생활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보다 방과 후 시간이 훨씬 길므로 이때 형성된 습관은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정에서의 돌봄과 사교육 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학부모들은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최대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의 일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혁신적인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방과후 시간의 활용을 통해 도시 초등학생 대비 열악한 여건의 상당부분은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

1.6. 학력 제고를 위한 교사의 열정 지원

농어촌 학생 가운데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고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도시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이 부족한 것에 영향을 받았

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농어촌 학교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가정에서 교육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학교는 학교 규모가 작고, 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도시 대비 적어서 경쟁적 학습문화의 형성에는 어렵지만, 학생별 학력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춘 학생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고, 특성화 교육과정의 구성, 프로젝트 학습 등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서 지닌 장점도 있음.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의 단점을 농어촌 학교가 지닌 장점을 활용하여 상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열정이 필요하고, 교직원의 열정을 지원해주는 정책당국의 지원과 주민들의 호응이 함께 한다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력 제고도 가능함.

1.7. 긍정적 자아 확립과 회복 탄력성 배양 추구

농어촌 초등학생이 사회·심리적인 환경에서 협력적 학습문화 수준과 학업자아개념 등은 물론이고 또래와의 관계도 도시대비 부족하며, 폭력 피해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아개념과 공동체의식, 인성, 다문화 수용성, 미래 핵심역량 비인지적 교육 환경 전반에 걸쳐 도시학생보다 수준이 낮았음.

농어촌 초등학생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자존감의 회복, 미래에 대한 설계 지원 등 내면의 힘을 키우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고, 긍정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길이 됨. 원만한 대인관계, 긍정적 공동체의식,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은 긍정적 자아 확립을 기반으로 가능하기 때문임. 긍정적 자아 확립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일은 나아가 학습에서도 그 효과가 드러날 것임.

참고 문헌

- 강은주. 2014.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 분석.” 『탐라문화』 47: 81-10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교육부. 2015. 시·도교육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15년 4월 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
- 김양분, 임현정, 남궁지영, 박희진, 신혜숙, 김성식, 김정민, 이규민, 빈재천. 2013. 교육중단 연구(KELS)2013(I)-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 남궁지영, 김정민, 박경호, 임현정. 2013. 교육중단연구 2013: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 연구보고 RR 2014-11. 한국교육개발원.
- 서길원. 2009. “작은학교 교육의 희망과 남한산초등학교.” 『교육비평』 26
- 송정은. 2015.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재정성과분석 및 만족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양병우, 양병찬, 송병주, 이미영, 송승용, 차동욱, 백승우, 이소영. 2005. 「농어촌 교육살리기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양병찬. 2004. 이제는 학교와 지역의 협동이 필요하다. 충남교육연구소. 충남교육연구. 통권 제9호. p.7-10.
- 양병찬. 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충남 홍동 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제14권 제3호. pp. 129-151.
- 양병찬, 마상진, 유정규, 이진철, 전광수. 2012.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보고서.
- 이광호. 2010. 새로운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김성천·박성만·이광호·이진철. 학교를 바꾸다, 교장공모제학교 2년의 기록. 우리교육. p. 10-51.
- 이정선. 2000.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부당성”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10권 1호
- 이혜영. 2010.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화룡. 2013. 『속리산중학교 효과분석 이슈페이퍼 연구』 충청북도교육청.
- 임연기. 2012.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의 특징 및 성과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30권 3호.
- 임현정, 김양분, 신혜숙, 신종호, 이광현. 2011.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II): 초등학교

- 연구. 연구보고 RR 2011-22. 한국교육개발원.
- 장호순. 2003.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농정연구, 통권7호.
- 조창희(발간예정),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경환, 마상진. 2009. 농촌학교의 활성화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종성. 2014. 농촌학교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준렬, 강대중. 2007.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부정기, 2007~201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970~20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2006~2015)

작은학교 교육연대 홈페이지(<http://www.smallschool.net/home001>)(2015.12.12.)

부 록

[부록 1] 제3장.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실태 재분석 표

1. 학생 1인당 교수·학습 공간 면적²³

2011년 조사 결과 전체 5,882개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교수·학습 공간 면적은 평균 $7.44m^2$ 인데, 읍·면지역은 평균 $11.17m^2$ 로 도시지역 대비 월등하게 넓음 <표 1>.

표 1.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수·학습 공간 면적

단위: m^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7.44	7.59
지역 규모	서울	3.41	1.12
	광역시	4.09	2.75
	중소도시	4.30	3.59
	읍·면지역	11.17	8.59
	도서벽지	16.26	12.27

자료: 임현정 외(2011).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II) 초등학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²³ 분교를 제외한 5,882개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교수학습 공간 면적은 정규 교실, 가교실, 대용 교실, 도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등을 포함한 교수학습 공간 전체 면적을 총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임(임현정 외, 2011).

2. 학교당 학급 수

2011년 초등학교의 1~6학년을 모두 포함한 총 학급 수 평균은 20.70개로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지역은 평균 33.83학급으로 가장 많고, 읍·면 지역은 평균 11.05학급으로 서울의 약 1/3, 전체 평균의 약 1/2 수준임<표 2>.

표 2. 초등학교 학교당 학급 수

단위: 학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70	14.18
지역 규모	서울	33.83	11.85
	광역시	28.24	11.21
	중소도시	26.98	12.27
	읍·면지역	11.05	9.59
	도서벽지	6.33	4.16

자료: 임현정 외(2011).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II) 초등학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 학급당 학생 수

2011년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0.71명이며 농어촌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15명이 되지 않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읍지역을 제외한 면지역 학교의 경우만을 산정한다면 더 적은 규모로 추정됨.

표 3.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71	8.80
지역 규모	서울	26.18	3.57
	광역시	24.71	4.55
	중소도시	26.70	5.59
	읍·면지역	14.49	7.93
	도서벽지	9.34	5.44

자료: 임현정 외(2011).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II) 초등학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4.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1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체 평균 14.65명이며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읍·면지역 소재 학교는 평균 9.74명으로 도시의 1/2, 전체 평균의 2/3 수준임. 이 또한 읍지역과 면지역 사이의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표 4.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65	7.04
지역 규모	서울	18.48	3.80
	광역시	17.76	4.15
	중소도시	19.52	4.76
	읍·면지역	9.74	6.18
	도서벽지	6.03	3.69

자료: 임현정 외(2011).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II) 초등학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5. 교직 경력

교직 경력은 정규 교원들의 총 경력을 전체 정규 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임<표 5>.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 경력은 평균 15.97(SD 3.89)년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시 지역 대비 농어촌지역 교사의 교직 경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교직 경력 편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 경력

단위: 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97	3.89
지역 규모	서울	16.33	1.88
	광역시	15.31	3.31
	중소도시	15.35	3.37
	읍·면지역	16.41	4.28
	도서벽지	16.83	5.52

자료: 임현정 외(2011).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Ⅲ) 초등학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6. 석사 졸업 이상 교사 비율

석사 졸업 이상 교사 비율은 <표 6>과 같음. 석사 졸업 이상 교사 비율은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평균 45.69%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이 평균 32.65%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직 경력과 학력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 초등학교의 교원이 여타지역의 교원에 비해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음.

표 6. 석사 졸업 이상 교사 비율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12	17.48
지역 규모	서울	29.73	8.37
	광역시	28.52	14.07
	중소도시	22.68	10.51
	읍·면지역	32.65	17.96
	도서벽지	45.69	28.94

자료: 임현정 외(2011).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Ⅲ) 초등학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7. 중점 교육목표

중점 교육목표는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목표가 무엇인지 질문한 것임. 모든 지역에서 ‘올바른 인격형성’이 가장 중점적 교육 목표라고 응답하였는데, 지역 규모에 따라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목표가 다르게 나타났음. 읍·면지역의 경우는 ‘기초학력 도달’, ‘창의성 함양’, ‘건전한 시민성 함양’ 순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창의성 함양’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또한 읍·면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학력 중심 수월성 교육’에 교육 목표를 둔다고 응답한 비율이 0%로 나타났음.

표 7. 중점 교육목표

단위: %

구분	1	2	3	4	5	6	7	8	9	
전체	6.56	.36	64.98	14.16	3.07	3.15	1.12	5.73	.87	-
특별시	0	0	71.18	16.01	0	3.20	3.20	6.40	0	33.780+
대도시	8.18	0	57.04	20.45	4.09	0	4.09	6.14	0	
중소도시	5.21	0	55.69	22.16	5.21	5.21	.00	6.52	0	
읍·면지역	8.94	.96	74.54	4.31	.86	3.18	.00	4.90	2.31	

주 1) 1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도달 2 학력 중심 수월성 교육 3 올바른 인격형성 4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5 특기적성개발 6 건전한 시민성함양 7 진로개발 8 창의성 함양 9 기타

2) +p<.10, *p<.05, **p<.01, ***p<.001

자료: 김양분 외(2014). 한국교육중단연구2013(I):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 한국교육개발원.

8. 학교운영 방식²⁴

학교 운영 방식은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식의 차이를 조사한 것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존의 제도 및 관행을 고치려고 하는지, 학교의 의사결정 시 교사

²⁴ 본 절부터 수록된 2011년 결과는 임현정 외(2011), 2013년 결과는 김양분 외(2014)의 통계 데이터를 도시 및 읍면지역 구분으로 통합하여 재분석한 자료임.

들의 의견을 비중있게 반영하는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줄이려고 하는지, 학교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 사업이나 연구학교에 응모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임(김양분 외, 2013).

8-1. 기존 제도 관행 수정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고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평균은 4.20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도시지역은 4.26점, 읍·면지역은 4.1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8-1. 학교운영방식: 기존 제도 관행 수정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7	4.20	.75	-
도시	145	4.26	.73	1.357
읍·면지역	89	4.13	.68	

*: p<.05, **: p<.01, ***: p<.001

8-2. 교사들의 의견 반영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가장 비중 있게 반영한다’는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두드러졌으며(4.51)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8-2. 학교운영방식: 교사들의 의견 반영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7	4.51	.62	-
도시	145	4.46	.63	1.811
읍·면지역	89	4.61	.59	

*: p<.05, **: p<.01, ***: p<.001

8-3. 교사들의 업무 경감 노력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줄이려고 한다’는 문항에 전체 평균은 4.61점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8-3. 학교운영방식: 교사들의 업무 경감 노력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7	4.61	.54	-
도시	145	4.64	.53	1.097
읍·면지역	89	4.56	.56	

*: p<.05, **: p<.01, ***: p<.001

9. 학교장의 교수-학습 지원²⁵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교수-학습지원 정도는 평균 4.02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을 나타냈는데, 지역 규모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 도시 지역의 경우 3.95점, 읍·면지역의 경우 4.12점으로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사들의 교수 및 학습에 대한 학교장의 지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음.

표 9. 학교장의 교수-학습 지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42	4.02	.42	-
도시	146	3.95	.41	3.105**
읍·면지역	91	4.12	.41	

*: p<.05, **: p<.01, ***: p<.001

25 교수-학습 지원은 학교장이 교사들의 교수 학습에 대해 지원해 주는지 여부를 교사들에게 질문한 것임. ‘필요한 수업 자료를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학습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환경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노력한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행정실, 보조인력의 역할을 조정하여 준다’, ‘평소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한다’, ‘새로운 교수 방법이나 제도 방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공개수업 참관 시 유용한 조언을 해준다’, ‘수업 및 업무와 관련하여 격려와 인정의 말을 자주 한다’의 8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임(김양분 외, 2013: 105).

10. 학습부진 학생 지원

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 지도 운영 방식이 방과 후 자기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지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비중이 읍·면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읍·면지역은 보조교사나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읍·면지역에서는 인력 활용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표 10. 학습부진아 지원

단위: %

구분	1	2	3	4	5	6
전체	14.97	8.95	13.81	29.34	8.95	23.98
특별시	25.29	8.11	9.83	15.27	20.99	20.52
대도시	13.75	12.99	18.34	25.89	3.82	25.21
중소도시	13.39	11.23	15.22	31.49	7.31	21.36
읍·면지역	12.30	5.14	11.78	36.05	7.90	26.82

주 1 학습부진 학생전담 강사채용 2 대학생 보조교사 활용 3 방과후 별도학급을 구성하여 지도 4 방과후 자기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지도 5 보조교사가 정규수업 중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수업 보조 6 학급부진학생 학습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활용

자료: 김양분 외(2014). 한국교육중단연구2013(I):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 한국교육개발원.

11. 학교 발전 저해 요인²⁶

학교장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열악한 가정환경, 열악한 지역환경을 꼽고 있음.

26 학교 발전 저해 요인은 교장에게 외부자원의 부족, 시험성적에 대한 학부모의 압력, 교사들의 역량부족,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 정부 또는 교육청의 규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열악한 가정환경, 열악한 지역 환경 8가지 항목에 대해 Likert 3점 척도로 측정되었음(김양분, 2014: 105).

표 11. 학교 발전 저해 요인

외부 자원의 부족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2	1.94	.55	-
도시	143	1.96	.59	.408
읍·면지역	86	1.93	.44	
시험성적에 대한 학부모의 압력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4	1.58	.56	-
도시	144	1.57	.52	.263
읍·면지역	87	1.59	.62	
교사들의 역량 부족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4	1.49	.62	-
도시	144	1.49	.60	.120
읍·면지역	87	1.48	.63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4	1.74	.67	-
도시	144	1.80	.65	1.904
읍·면지역	87	1.63	.67	
정부 또는 교육청의 규제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2	1.98	.64	-
도시	143	1.99	.66	.459
읍·면지역	86	1.95	.60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4	1.91	.69	-
도시	144	1.87	.70	.962
읍·면지역	87	1.96	.67	

열악한 가정환경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4	1.94	.69	-
도시	144	1.89	.71	1.278
읍·면지역	87	2.01	.66	
열악한 지역환경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34	1.82	.66	-
도시	144	1.75	.67	2.012*
읍·면지역	87	1.93	.64	

*: p<.05, **: p<.01, ***: p<.001

12. 학교의 협력적 문화²⁷

교사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료 교사와 협동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도시 4.05, 읍·면지역의 경우, 4.03점으로 전체 평균 4.04에 가깝게 나타났음.

표 12. 학교의 협력적 문화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6,827	4.04	1.65	-
도시	4,432	4.05	.02	.906
읍·면지역	2,395	4.03	1.47	

*: p<.05, **: p<.01, ***: p<.001

27 교사의 협동 문항은 교사들이 직무와 관련 동료교사와 협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학교교육 활동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가치와 신념을 동료 교사와 공유한다’, ‘우리 학교는 가족과 같다’, ‘서로 협력을 잘한다’, ‘학교교육 목표와 활동내용을 잘 알고 있다’, ‘교내 교사모임에 활발히 참여한다’, ‘학생 지도 및 수업 활동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동료 교사들로부터 조언을 얻는다’ 7개 문항으로 구성됨(임현정 외, 2011: 133).

13. 학생 만족도

13-1. 인간관계 만족도²⁸

2011년 250개 초등학교 평균 인간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45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며, 그 분포는 <표 13-1>과 같음.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학교 평균 인간관계 만족도는 도시지역이 3.48점이 고, 읍·면지역이 3.40점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읍·면지역 대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1. 학생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45	1.10	-
도시	10,165	3.48	1.43	2.415*
읍·면지역	2,010	3.40	.90	

*: p<.05, **: p<.01, ***: p<.001

13-2. 학교생활 만족도²⁹

2011년 학생들의 초등학교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3.78점으로,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이상이었으며, 그 분포는 다음과 같음.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82, 읍·면지역 거주 학생의 경우 3.73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28 인간관계 만족도는 학생이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다', '학교의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나는 개인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담임선생님과 의논할 수 있다'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들은 역 채점하였음.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임현정 외, 2011: 172).

29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 '학교생활이 따분하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표로, 부정적 의미의 문항들은 역 채점됨.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임현정 외, 2011: 173).

표 13-2. 학생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78	2.21	-
도시	10,165	3.82	2.04	1.899
읍·면지역	2,010	3.73	1.34	

*: p<.05, **: p<.01, ***: p<.001

13-3. 학업 만족도³⁰

250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학업 만족도는 전체 평균 3.38점으로,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이상이었으며, 도시와 읍·면지역의 차이는 없었음.

표 13-3. 학생 만족도: 학업 만족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38	2.21	-
도시	10,165	3.38	2.04	0.000
읍·면지역	2,010	3.38	.90	

*: p<.05, **: p<.01, ***: p<.001

14. 학부모 만족도

14-1. 학교교육 만족도³¹

2011년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는 전체 평균 3.53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임. 학교 소재지 규모별로 학부모들의 만족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 학생의 학업 만족도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학교는 나의 기본 능력(각 교과에서 기본이 되는 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쳐 주신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과 관련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74).

31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학교는 자녀의 기초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자녀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75).

읍·면지역 학교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가 평균 3.59점, 도시지역은 3.49점으로 나타났음. 즉 도시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14-1. 학부모 만족도: 학교교육 만족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1,475	3.53	1.07	-
도시	6,632	3.49	1.07	4.353***
읍·면지역	4,843	3.59	1.39	

*: p<.05, **: p<.01, ***: p<.001

14-2. 학교운영 만족도³²

초등학교 평균 학교운영 만족도는 전체 평균 3.48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지역 규모별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 학부모는 3.45점, 읍·면지역 학부모는 3.53점으로 나타났음. 즉 학교운영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학부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14-2. 학부모 만족도: 학교운영 만족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1,475	3.48	1.07	-
도시	6,632	3.45	.08	4.676***
읍·면지역	4,843	3.53	1.39	

*: p<.05, **: p<.01, ***: p<.001

32 학부모의 학교운영 만족도는 학교의 운영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학교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상호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협의하여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발전에 도움을 준다'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76).

15. 교사 만족도³³

2011년 초등학교 평균 교사 만족도 수준은 전체 평균 3.73점이었으며, 읍·면 지역 소재의 학교가 평균 3.74점, 도시지역의 경우 3.71점으로 분석되었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표 15. 교사 만족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6,827	3.73	1.65	-
도시	4,432	3.71	1.38	.943
읍·면지역	2,395	3.74	.98	

*: p<.05, **: p<.01, ***: p<.001

16. 협력적 학습 문화³⁴

초등학교 평균 학교의 협력적 학습 문화 수준은 3.47점으로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이상이었으며, 도시지역의 학교가 평균 3.48점, 읍·면지역의 학교 평균은 3.45점으로 도시의 초등학생이 읍·면지역 초등학생 대비 협력적 학습 문화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6. 협력적 학습 문화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47	1.10	-
도시	10,165	3.48	1.48	2.152*
읍·면지역	2,010	3.45	.90	

*: p<.05, **: p<.01, ***: p<.001

33 교사 만족도는 교사들이 교사라는 직업 및 업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우리 학교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맞이 한다', '다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교사가 될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데 대해 긍지를 느낀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은 것은 교사들이 소속한 학교에서 교직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임현정 외, 2011: 177).

34 학습 문화는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용 태도와 청소년들이 실제로 나타내는 학습 행동의 총체(이영호, 2002)로, 본 연구에서 협력적 학습 문화와 경쟁적 학습 문화의 두 유형을 선정됨. 협력적 학습 문화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함께 숙제를 할 때 친구의 의견을 존중한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지표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학생들 간 협력적 학습 문화가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임현정 외, 2011: 136).

17. 경쟁적 학습 문화³⁵

전체 초등학생의 경쟁적 학습 문화 수준은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는 3.49, 읍·면지역은 3.36점으로 분석되었음. 즉 도시의 초등학생이 읍·면지역 초등학생 대비 경쟁적 학습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냄.

표 17. 경쟁적 학습 문화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43	1.10	-
도시	10,165	3.49	1.58	3.576***
읍·면지역	2,010	3.36	.90	

*: p<.05, **: p<.01, ***: p<.001

18. 학업자아개념³⁶

학업자아개념은 도시지역 학교가 평균 3.87점, 읍·면지역이 평균 3.71점으로 도시 거주 초등학생의 학업자아개념이 읍·면지역 거주 초등학생 대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8. 학업자아개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81	3.84	.80	-
도시	6153	3.87	.79	6.290***
읍·면지역	1,128	3.71	.76	

*: p<.05, **: p<.01, ***: p<.001

35 경쟁적 학습 문화는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려고 노력한다', '다른 친구들보다 잘 하려고 할 때 공부 더 잘 된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학생들 간에 경쟁적 학습 문화가 조성되어 있을수록 본 지표의 점수는 높아짐(임현정 외, 2011: 137).

36 학업 자아개념은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김양분 외, 2013: 58).

19. 내재적 학습 동기³⁷

학습 동기 수준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내재적 학습 동기는 학생이 학습하고자하는 이유가 흥미와 같은 내적 요인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임. 2011년에는 도시지역 학교가 평균 2.77점, 읍·면지역이 평균 2.7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19. 내재적 학습 동기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2.75	1.10	-
도시	10,165	2.77	2.04	1.294
읍·면지역	2,010	2.71	.90	

*: $p < .05$, **: $p < .01$, ***: $p < .001$

20. 외재적 학습 동기³⁸

외재적 학습 동기는 학생이 학습하고자하는 이유가 외적 조건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임. 전체 초등학생 평균 외재적 학습 동기 수준은 평균 1.76점으로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도시지역 학교는 평균 1.75점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1.8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즉 공부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수준이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37 내재적 학습 동기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도전하는 것이 즐거워서’,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표이며,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동기를 내재적 원인에 두는 것으로 해석됨(임현정 외, 2011: 142).

38 외재적 학습 동기는 ‘외적조절동기’ 변인명으로 측정되었으며, 나는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선생님 상을 주시거나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므로’, ‘선생님이 하라고 시키므로’ 공부한다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됨(김양분 외, 2013: 63).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동기를 외재적 원인에 두는 것으로 해석됨.

표 20. 외재적 학습 동기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58	1.76	.63	-
도시	6,132	1.75	.63	2.951**
읍·면지역	1,125	1.81	.61	

*: $p < .05$, **: $p < .01$, ***: $p < .001$

21. 교과 자아개념³⁹

교과 자아개념은 교과에 대한 흥미 및 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어,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한 학교 평균 자아개념 실태를 조사한 자료임. 초등학교의 평균 교과 자아개념 정도는 전체 평균 3.13점으로 보통수준이었음. 도시지역이 평균 3.17점, 읍·면지역은 평균 3.06점으로 도시 거주 초등학생의 교과에 대한 흥미 및 적성 수준이 읍·면지역 거주 초등학생 대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 교과 자아개념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13	1.10	-
도시	10,165	3.18	1.58	3.301**
읍·면지역	2,010	3.06	.90	

*: $p < .05$, **: $p < .01$, ***: $p < .001$

39 교과 자아개념은 '이 교과를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이 교과를 공부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 교과를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임현정 외, 2011: 144).

22. 자아존중감⁴⁰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서 자신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임. 초등학교 학생의 평균 자아존중감 수준은 5점 척도에 평균 3.5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도시지역의 학교 평균은 3.58점, 읍·면지역의 학교가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차이는 분석되지 않았음.

표 22. 자아존중감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56	1.10	-
도시	10,165	3.58	1.43	1.812
읍·면지역	2,010	3.52	.90	

*: p<.05, **: p<.01, ***: p<.001

23. 친구와의 관계⁴¹

초등학교 학생의 평균 친구와의 관계 인식 수준은 3.79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음. 도시 평균은 3.80점, 읍·면지역 평균 3.68점으로, 도시 거주 초등학생의 친구와의 관계 인식 수준이 읍·면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3. 친구와의 관계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58	3.79	.83	-
도시	6,129	3.80	.83	4.464***
읍·면지역	1,129	3.68	.79	

*: p<.05, **: p<.01, ***: p<.001

40 자아존중감은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를 무시하고 알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 '선생님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표로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들은 역 채점함. 따라서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45).

41 친구와의 관계는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김양분 외, 2013: 69).

24. 학교 내 폭력 정도⁴²

초등학교 학생의 평균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2.50점으로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도시와 읍·면지역은 각각 2.49점과 2.5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4. 학교 내 폭력 정도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54	2.50	.89	-
도시	6,125	2.49	.88	-.703
읍·면지역	1,129	2.51	.87	

*: p<.05, **: p<.01, ***: p<.001

25.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⁴³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평균 1.41점으로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고, 읍·면지역은 1.44점, 도시지역은 1.40점으로 도시 초등학교 학생의 폭력 피해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56	1.41	.63	-
도시	6,127	1.40	.62	1.981*
읍·면지역	1,129	1.44	.64	

*: p<.05, **: p<.01, ***: p<.001

42 학교 내 폭력은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일이 일어난다’, ‘학생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몸에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난다’, ‘특정 학생을 고의로 따돌리는 일(왕따)이 일어난다’, ‘욕설을 쓰는 학생이 많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따라서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내 폭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김양분 외, 2013: 69).

43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은 ‘공부를 못하게 방해나 괴롭힘을 당했다’,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채팅이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유 없이 욕설이나 비난을 들었다’, ‘얼굴에 대고 욕설을 들었다’, ‘친구에게 심하게 맞았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김양분 외, 2013: 70).

26. 비행·일탈⁴⁴

비행·일탈은 학생의 문제 행동 정도를 측정한 것임. 초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비행·일탈 정도는 평균 1.48점(5점 만점)이었으며, 도시와 읍·면지역은 각각 평균 1.49점과 1.48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

표 26. 비행·일탈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1.48	1.10	-
도시	10,165	1.49	1.43	.302
읍·면지역	2,010	1.48	.90	

*: p<.05, **: p<.01, ***: p<.001

27.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학생이 살아가면서 본인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와 신념을 의미하는데, ‘사회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음(김양분 외, 2014).

27-1. 사회 자아개념⁴⁵

초등학생의 사회 자아개념은 평균 4.18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4.09점으로 도시 4.20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음.

44 비행·일탈 정도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비행·일탈의 빈도를 바탕으로 측정되었는데, 하위 문항은 ‘무단결석’, ‘수업에 불참’, ‘복장 불량’, ‘시험 부정행위’ 등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따라서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행·일탈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① 거의 발생하지 않음과 ⑤ 자주 발생함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임현정 외, 2011: 149).

45 사회 자아개념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나는 단체생활을 잘 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김양분 외, 2013: 58).

표 27-1. 사회 자아개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84	4.18	.65	-
도시	6154	4.20	.65	5.229***
읍·면지역	1,130	4.09	.65	

*: p<.05, **: p<.01, ***: p<.001

27-2. 학업 자아개념⁴⁶

전체 초등학생의 학업자아개념은 3.87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은 3.87점으로 나타났으며 3.71점을 보인 읍·면지역 대비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즉 도시 거주 초등학생의 학업 자아개념이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7-2. 학업 자아개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81	3.84	.80	-
도시	6153	3.87	.79	6.290***
읍·면지역	1,128	3.71	.76	

*: p<.05, **: p<.01, ***: p<.001

46 학업 자아개념은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김양분 외, 2013: 58).

27-3. 가족 자아개념⁴⁷

초등학생의 가족 자아개념은 평균 4.39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은 4.39점, 읍·면지역은 4.38점으로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27-3. 가족 자아개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82	4.39	.70	-
도시	6153	4.39	.70	0.446
읍·면지역	1,129	4.38	.65	

*: p<.05, **: p<.01, ***: p<.001

27-4. 신체 자아개념⁴⁸

전체 초등학생의 신체 자아개념은 3.54점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은 3.56점으로 3.43점인 읍·면지역 초등학생의 신체 자아개념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7-4. 신체 자아개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82	3.54	.82	-
도시	6,152	3.56	.82	4.924***
읍·면지역	1,130	3.43	.79	

*: p<.05, **: p<.01, ***: p<.001

47 가족 자아개념은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도와준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김양분 외, 2013: 58).

48 신체 자아개념은 '나는 나의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몸매에 만족한다', '나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용모는 매력적인 편이다'의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음(김양분 외, 2013: 58).

28. 참여의식⁴⁹

참여의식은 전체 평균 3.94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읍·면 지역은 3.82점, 도시지역은 3.96점으로 나타났다. 즉 읍·면지역 대비 도시 거주 초등학생의 참여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참여의식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74	3.94	.79	-
도시	6145	3.96	.78	5.552***
읍·면지역	1,128	3.82	.77	

*: p<.05, **: p<.01, ***: p<.001

29. 타인배려⁵⁰

타인배려 수준은 전체 초등학생이 평균 3.79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은 3.69점으로 도시지역(3.81) 보다 낮았음. 도시지역의 학생이 타인 배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타인배려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73	3.79	.70	-
도시	6144	3.81	.69	5.369***
읍·면지역	1,128	3.69	.69	

*: p<.05, **: p<.01, ***: p<.001

49 참여의식은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한다'의 2개 문항으로 측정됨(김양분 외, 2013: 59).

50 타인배려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됨(김양분 외, 2013: 59).

30. 인성: 친절·양보⁵¹

2011년 초등학교 평균 친절·양보 정도는 전체 평균 3.49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규모별로 비교하면 도시지역이 평균 3.59점, 읍·면지역 학교 평균은 3.45점으로 나타났음. 즉 도시의 초등학교의 양보·친절 정도 수준이 읍·면 초등학교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30. 인성: 친절·양보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49	1.10	-
도시	10,165	3.52	1.48	2.047*
읍·면지역	2,010	3.45	.90	

*: p<.05, **: p<.01, ***: p<.001

31. 인성: 책임·협동⁵²

2011년 초등학교 책임·협동 정도는 전체 평균 3.76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이었으며, 도시지역 3.79점, 읍·면지역 3.7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31. 인성: 책임·협동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76	1.10	-
도시	10,165	3.79	1.58	1.925
읍·면지역	2,010	3.72	.90	

*: p<.05, **: p<.01, ***: p<.001

51 친절·양보 정도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나 장애인이 타면 피곤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한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표로,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친절·양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66).

52 책임·협동 정도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남의 일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 ‘내 일이 아니면 대충한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표이며, 부정적 의미의 문항들은 역 채점되었음. 따라서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책임·협동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67).

32. 인성: 규칙준수⁵³

전체 초등학생의 규칙준수 정도는 4.03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규모별 분석에서는 읍·면지역이 3.92점, 도시지역이 4.05점으로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규칙준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2. 인성: 규칙준수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74	4.03	.65	-
도시	6144	4.05	.65	6.208***
읍·면지역	1,130	3.92	.63	

*: p<.05, **: p<.01, ***: p<.001

33. 다문화 수용성⁵⁴

다문화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체 초등학생이 평균 4.0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이 3.97점, 도시지역이 4.09점으로 나타났음. 즉 읍·면지역 거주 초등학생이 도시지역 초등학생 대비 다문화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를 다소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3. 다문화 수용성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45	4.07	.75	-
도시	6122	4.09	.75	4.955***
읍·면지역	1,124	3.97	.73	

*: p<.05, **: p<.01, ***: p<.001

53 규칙준수는 ‘학급 규칙을 잘 지킨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린다’, ‘친구들과 놀 때 놀이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하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됨(김양분 외, 2013: 60).

54 다문화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는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과 가장 친한 단짝친구가 될 수 있다’, ‘학급에 외국에서 온 학생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피부색이나 겉모습이 다른 학생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우리 학교에 여러 인종과 문화를 지닌 학생들이 들어와 학생들이 다양해지면 좋겠다’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됨(김양분 외, 2013: 62).

34. 진로성숙도: 자기이해⁵⁵

자기이해 수준은 전체 초등학생이 4.17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높았으며, 읍·면지역의 초등학생은 평균 4.08점으로 도시지역 4.19점 대비 자기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진로성숙도: 자기이해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54	4.17	.75	-
도시	6128	4.19	.75	4.542***
읍·면지역	1,126	4.08	.73	

*: p<.05, **: p<.01, ***: p<.001

35. 진로성숙도: 진로계획성⁵⁶

진로계획성은 진로 방향 및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를 의미하며, 전체 초등학생의 경우 3.95점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초등학생 평균은 3.97점, 읍·면지역의 경우는 3.88점으로 나타났는데,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진로계획성이 읍·면지역 거주 학생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5. 진로성숙도: 진로계획성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28	3.95	.81	-
도시	6,106	3.97	.81	3.459***
읍·면지역	1,122	3.88	.75	

*: p<.05, **: p<.01, ***: p<.001

55 자기이해는 ‘내가 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안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안다’, ‘내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됨(김양분 외, 2013: 62).

56 진로계획성은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진로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본다’, ‘나는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주 생각해본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됨(김양분 외, 2013: 63).

36. 미래핵심역량⁵⁷

미래핵심역량은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면하게 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창의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의 종합적 능력을 말함. 창의역량은 창의적 사고 및 정보 활용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이고, 자기주도역량은 개인이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을 활용하는 역량이며, 사회역량은 사회 공동체 동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 역할 수행 및 관리 역량을 의미함. 전체 초등학교 평균 미래핵심역량은 3.27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이었으며, 도시지역 평균이 3.31점, 읍·면지역 3.22점으로 도시 대비 읍·면지역 초등학생의 미래핵심역량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6. 미래핵심역량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34	1.10	-
도시	10,165	3.38	1.43	3.019**
읍·면지역	2,010	3.28	.90	

*: p<.05, **: p<.01, ***: p<.001

57 창의역량의 하위요소로는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정보활용력이 있으며, 자기주도역량의 하위요소로는 성취동기, 자기관리능력, 자기확신이 있다. 사회역량은 의사소통능력, 협동심(팀워크), 사회적 책무성과 같은 하위요소로 구성되었음. 각 하위요소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은 5~6개로 구성됨(임현정 외, 2011: 168).

37.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학생의 평균적인 향후 진학 계획을 통해 조사된 교육포부의 경우 도시지역의 학교가 평균 16.12년인데 읍·면지역의 학교는 평균 15.4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즉 도시지역 대비 읍·면지역 거주 초등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음.

표 37.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15.85	2.21	-
도시	10,165	16.14	1.86	16.024***
읍·면지역	2,010	15.46	.90	

*: $p < .05$, **: $p < .01$, ***: $p < .001$

38.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

지역 규모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기대를 살펴보면 ‘대학교’ 진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자녀가 ‘전문대학(2/3년제)’까지 진학하길 바라는 학부모들이 9.07%로 특별시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음.

표 38.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

구분	단위: %						
	1	2	3	4	5	6	7
전체	.67	5.02	59.53	10.54	20.09	4.15	7,156
특별시	.33	3.37	57.15	13.84	21.48	3.82	1,219
대도시	.64	4.35	58.81	9.37	22.90	3.94	1,767
중소도시	.82	4.61	60.63	11.06	18.90	3.98	3,067
읍·면지역	.67	9.07	60.26	7.32	17.36	5.32	1,104

주 1 고등학교 2 전문대학(2/3년제) 3 대학교 4 대학원 석사과정 5 대학원 박사과정
6 잘 모르겠다 7 가중사례 수

자료: 김양분 외(2014). 한국교육중단연구2013(I):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 한국교육개발원.

39. 학습태도(끈기)⁵⁸

학교 수업 태도 중 끈기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태도(끈기)는 5점 척도에 3.17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며, 도시는 3.22점, 읍·면지역은 3.10점으로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즉 도시 대비 읍·면지역 초등학생의 끈기 있게 공부하는 태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9. 학습태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17	1.10	-
도시	10,165	3.22	2.04	2.589**
읍·면지역	2,010	3.10	.90	

*: $p < .05$, **: $p < .01$, ***: $p < .001$

40. 수업 집중 시간⁵⁹

수업 집중 시간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측정한 지표임. 초등학생 평균 수업 집중 시간은 수업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평균 2.95점(약 11~20분)으로, 그 분포는 다음 <표 40>과 같음.

지역 규모별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2.99점, 읍·면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2.90점으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58 학습태도 중 학생의 끈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공부할 때 내용이 어려워도 끈기 있게 공부한다', '계획한 것을 마칠 때까지 공부한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됨.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끈기 있게 공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46).

59 수업 집중 시간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측정한 지표로서, 국어, 수학, 과학 교과와 관련한 수업 집중 시간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지표화한 것임. 수업 집중 시간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40분 중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4점 척도(① 0-10분, ② 11-20분, ③ 21-30분, ④ 31-40분)를 통해 조사한 것으로, 본 지표의 지수가 높을수록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47).

표 40. 수업 집중 시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2.95	1.10	-
도시	10,165	2.99	1.32	2.925**
읍·면지역	2,010	2.90	.90	

*: p<.05, **: p<.01, ***: p<.001

41. 학교 수업 태도⁶⁰

학교 수업 태도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2011년 초등학교 전체 학교 수업 태도는 평균 3.11점으로,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도시지역 학생들이 평균 3.17점, 읍·면지역 학생들은 평균 3.0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즉 도시 대비 읍·면지역 초등학생의 학교 수업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 학교 수업 태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11	1.10	-
도시	10,165	3.18	1.58	4.126***
읍·면지역	2,010	3.03	.90	

*: p<.05, **: p<.01, ***: p<.001

60 학교 수업 태도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한다', '그 날 배운 것을 복습한다', '내준 숙제를 꼬박 꼬박 해간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 교과와 평균값을 산출함.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 태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48).

42. 수업 분위기⁶¹

수업 분위기는 수업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말함. 초등학교의 평균 수업 분위기는 평균 3.5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며, 그 분포는 읍·면지역이 3.51점, 도시가 3.4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42. 수업 분위기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69	3.50	0.76	-
도시	6,141	3.49	0.76	.821
읍·면지역	1,128	3.51	0.71	

*: p<.05, **: p<.01, ***: p<.001

43. 교수자 중심 수업⁶²

2011년 표집학교의 국어,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한 평균 교수자 중심 수업정도는 평균 3.70점으로 보통 이상이였으며, 도시지역이 3.73점, 읍·면지역이 3.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61 수업 분위기는 ‘우리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신다’, ‘우리 반 학생들은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없다’,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등 7개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 측정됨. 구성 문항 중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므로 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김양분 외, 2013: 66).

62 수업 방법은 학습의 통제 소재에 따라서 교수자/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나뉘며, 교수자 중심 수업은 교수학습 과정을 교사가 주도하는 학습 방법으로, ‘설명을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 ‘우리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신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표임.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 시간에 주로 교수자 중심의 학습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함(임현정 외, 2011: 140).

표 43. 교수자 중심 수업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70	2.21	-
도시	10,165	3.73	2.29	1.516
읍·면지역	2,010	3.65	1.34	

*: p<.05, **: p<.01, ***: p<.001

44. 학습자 중심 수업⁶³

학습자 중심 수업 지표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의 선정에 참여하며, 학습자가 교수·학습 과정의 중심축인 학습 방법을 의미함. 초등학교 평균 학습자 중심 수업 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35점으로, 도시지역이 평균 3.37점, 읍·면지역은 3.32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표 44. 학습자 중심 수업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35	2.21	-
도시	10,165	3.37	2.18	1.011
읍·면지역	2,010	3.32	.90	

*: p<.05, **: p<.01, ***: p<.001

63 학습자 중심 수업 지표는 '선생님은 우리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 과제를 해결한다'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 시간에 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이 활용됨을 나타냄(임현정 외, 2011: 141).

45. 교사의 학업적 지원⁶⁴

전체 초등학교의 교사의 학업적 지원 정도는 5점 척도의 평균 4.02점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는 3.49점, 읍·면은 3.5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45. 교사의 학업적 지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69	4.02	.76	-
도시	6,141	3.49	.76	.821
읍·면지역	1,128	3.51	.71	

*: p<.05, **: p<.01, ***: p<.001

46. 학업성취도: 국어

지역 규모별 국어 기초능력검사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도시의 경우 198.96이고, 읍·면지역은 195.32로 농어촌지역의 국어 기초능력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 학업성취도: 국어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05	198.39	36.44	-
도시	6,079	198.96	36.79	3.081**
읍·면지역	1,126	195.32	34.28	

*: p<.05, **: p<.01, ***: p<.001

64 교사의 학업적 지원은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신다’, ‘학생들의 과제를 도와주신다’,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해 주신다’, ‘모든 학생들의 공부에 관심을 보이신다’, ‘학생들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다’, ‘학생들에게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신다’의 6개 문항으로 측정됨(김양분 외, 2013: 66-67).

47. 학업성취도: 영어

지역 규모별 영어 기초능력검사 평균 점수도 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읍·면지역의 학생이 도시지역의 학생보다 영어 기초능력검사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7. 학업성취도: 영어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199	200.62	37.69	-
도시	6,082	202.17	37.39	8.195***
읍·면지역	1,124	192.23	37.19	

*: $p < .05$, **: $p < .01$, ***: $p < .001$

48. 학업성취도: 수학

지역 규모별 수학 기초능력검사 결과 또한 타 과목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의 학생이 도시지역의 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8. 학업성취도: 수학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199	199.94	37.36	-
도시	6,073	200.98	37.74	5.515***
읍·면지역	1,126	194.33	33.89	

*: $p < .05$, **: $p < .01$, ***: $p < .001$

49. 독서 향유 정도⁶⁵

2011년 초등학교 평균 독서 향유 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39점으로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규모에 따른 학교 평균은 도시 3.42점, 읍·면 평균 3.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49. 독서 향유 정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3.39	1.10	-
도시	10,165	3.42	1.58	1.925
읍·면지역	2,010	3.35	.90	

*: p<.05, **: p<.01, ***: p<.001

50. 봉사활동 경험 여부

학교 밖에서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도시지역 학생에 비해 읍·면지역의 학생의 경우 17.87%로 봉사활동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특별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소도시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0. 봉사활동 경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가중사례수	X ²
전체	19.44	80.56	7,149	-
특별시	26.42	73.58	1,211	45.434***
대도시	18.02	81.98	1,747	
중소도시	18.06	81.94	3,082	
읍·면지역	17.87	82.13	1,110	

*: p<.05, **: p<.01, ***: p<.001

자료: 김양분 외(2014). 한국교육중단연구2013(I):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 한국교육개발원.

65 독서 향유 정도는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독서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독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독서를 많이 즐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50).

51.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⁶⁶

도시지역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평균 3.52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읍·면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3.36점으로 도시지역 초등학생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1.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199	3.49	.94	-
도시	6,077	3.52	.93	5.319***
읍·면지역	1,121	3.36	.90	

*: p<.05, **: p<.01, ***: p<.001

52. 공부 활동 시간⁶⁷

공부 활동 시간은 학교 외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조사한 것으로, 2013년 전체 학교 공부 활동 시간은 일일 평균 1.99시간이었으며, 도시지역이 2.05시간인 반면, 읍·면지역은 평균 1.71시간으로 하루 평균 공부 활동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 자기주도 학습시간

단위: 일일 평균 시간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23	1.99	1.60	-
도시	6,104	2.05	1.63	6.565***
읍·면지역	1,119	1.71	1.37	

*: p<.05, **: p<.01, ***: p<.001

66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봉사활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편이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됨(김양분 외, 2013: 74).

67 공부 활동 시간은 학교 외 하루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전혀 없음'부터 '9시간 이상'까지 1시간 단위로 표기하도록 조사한 결과임(김양분 외, 2014: 58).

53. 운동 시간

학교 체육 시간을 제외하고 운동하는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체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2.6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2.69시간으로 읍·면지역의 2.46시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3. 운동 시간

단위: 주당 평균 시간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28	2.65	2.50	-
도시	6106	2.69	2.51	2.846**
읍·면지역	1,123	2.46	2.37	

*: p<.05, **: p<.01, ***: p<.001

54. 컴퓨터 사용 시간

초등학생의 일일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은 0.95시간인데, 도시 학생 평균 0.95시간, 읍·면지역 학생 평균 0.97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4. 컴퓨터 사용 시간

단위: 일일 평균 시간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179	0.95	1.08	-
도시	6,069	0.95	1.08	.568
읍·면지역	1,110	0.97	1.07	

*: p<.05, **: p<.01, ***: p<.001

55. 학습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⁶⁸

초등학생의 학습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은 하루 평균 30분 미만으로, 도시 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학습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2.36	1.10	-
도시	10,165	2.40	1.58	2.751**
읍·면지역	2,010	2.30	.90	

*: $p < .05$, **: $p < .01$, ***: $p < .001$

56. 여가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⁶⁹

여가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표는 채팅이나 메시지를 통한 대화, 음악, 영화, 만화, 동영상 감상, 게임등과 관련하여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2011년 평균 여가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30분미만(2.63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규모에 따른 학생 평균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학생 평균이 2.68점이고 도시지역 학생 평균이 2.59점으로 분석되었음. 즉 도시 대비 읍·면지역 초등학생의 여가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평균 시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68 학습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측정 문항은 ‘학습 자료의 검색’, ‘학교 과제물 작성’, ‘학습 프로그램 활용’ 3개 문항에 대해 6점 척도(① 사용하지 않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시간-2시간 미만, ⑤ 2시간-3시간 미만, ⑥ 3시간 이상)를 사용함(임현정 외, 2011: 153).

69 여가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측정하는 하부문항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측정하는 지표와 마찬가지로 6점 척도를 사용함. 본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54).

표 56. 여가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2.63	1.10	-
도시	10,165	2.59	1.70	2.310*
읍·면지역	2,010	2.68	.90	

*: p<.05, **: p<.01, ***: p<.001

57. 휴대전화 사용시간

초등학생의 하루 간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균 1.62시간으로 나타났음.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1.61시간, 읍·면지역의 경우는 1.69시간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표 57. 휴대전화 사용시간

단위: 일일 평균 시간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184	1.62	1.54	-
도시	6070	1.61	1.55	1.588
읍·면지역	1,114	1.69	1.52	

*: p<.05, **: p<.01, ***: p<.001

58. 한부모 가정 비율⁷⁰

학생의 가정배경 특성은 학생의 학업, 인성, 제반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음. 가정배경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2005년에 조사한 중학교 학생 대상의 결과를 참고삼아 지역 규모별 한부모 가정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가 약 9.3~9.4%인데 반해 읍·면지역이 13.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표 58. 한부모 가정 비율

단위: %

구분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무응답
전체	88.4	9.7	1.9
특별시	88.8	9.3	1.9
대도시	89.2	9.4	1.3
중소도시	88.6	9.4	2.0
읍·면지역	82.4	13.6	4.0

자료: 김양분 외(2006). 한국교육중단연구2005(II). 한국교육개발원.

59. 부모의 학력⁷¹

부의 경우 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학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은 9.7%로 도시가 약 26~34%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나 대졸자의 비율에 있어서 도시가 15~22%인데, 읍·면은 5.8%로 부의 경우보다는 차이가 작지만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70 김양분 외(2006), 한국교육중단연구2005(I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6-22. 「한국교육중단연구2005」의 1차년도 조사 당시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가족의 구조로, 학부모 질문지의 부모 혼인상태 정보를 기초로 함.

71 상동. 조사 당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 하나로, 학부모 질문지의 부모 학력에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결과임. 이상 가정구조, 부모의 학력 2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은 중학생 대상의 응답 결과이고, 조사시점(2005)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기에 참고자료로만 제시함.

표 59. 부모의 학력

단위: %, 명

구분		초졸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석사	박사	무응답	비가중빈도
부	특별시	1.9	2.9	39.2	11.4	34.6	5.5	1.1	3.4	1,208
	대도시	1.1	5.2	43.7	12.8	27.7	4.5	1.5	3.5	1,901
	중소도시	1.9	6.1	45.4	11.7	26.3	4.4	0.9	3.2	3,040
	읍·면지역	6.6	14.6	54.2	8.4	9.7	2.8	0.0	3.7	609
모	특별시	1.2	6.1	54.8	11.5	21.6	2.0	0.5	2.3	1,208
	대도시	1.2	6.5	60.1	10.7	17.2	1.5	0.2	2.6	1,901
	중소도시	1.6	6.1	62.5	9.8	15.2	1.5	0.0	3.3	3,040
	읍·면지역	7.8	13.7	60.3	5.6	5.8	0.0	0.5	6.4	609

자료: 김양분 외(2006). 한국교육종단연구2005(II). 한국교육개발원.

6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⁷²

초등학교 학부모의 도시와 읍·면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은 도시지역이 47.39점인 반면 읍·면지역은 40.06점으로 지역 규모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6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0,143	44.17	44.99	-
도시	5,302	47.39	41.47	9.822***
읍·면지역	4,843	40.06	32.71	

*: p<.05, **: p<.01, ***: p<.001

7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업 지위 수준을 점수화(16~85점)한 후, 부와 모 중 높은 점수로 산출함. 점수는 Ganzeboom 등(1989)의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에 근거하여 점수화한 것임(임현정 외, 2011: 123).

61. 문화적 활동⁷³

문화적 활동은 학생과 부모가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을 추정하는 지표임.

학생의 문화 활동은 6점 척도(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년에 1번, ③ 1학기에 1~2번, ④ 1달에 1~2번, ⑤ 1주일에 1~2번, ⑥ 거의 매일)에 평균 1.74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문화 활동이 1년에 한번 이하임을 의미함. 도시지역 학교의 평균이 1.78점인데 반해서 읍·면지역은 평균 1.69점으로,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문화 활동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61. 문화적 활동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1.74	1.10	-
도시	10,165	1.78	1.32	2.925**
읍·면지역	2,010	1.69	.90	

*: p<.05, **: p<.01, ***: p<.001

62. 부모-자녀 상호작용⁷⁴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의 친근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회문화적 측면과 가족관계 측면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음.

73 문화적 활동 지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 고전 음악회나 오페라 공연 관람,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 전통 음악, 민속 공연 관람 등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적 활동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문화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현정 외, 2011: 126).

74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사회문화 측면은 정치 또는 사회 문제 토론, 책, 영화, TV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구성한 지표이며,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가족관계 측면은 얼마나 자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지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구성함(임현정 외, 2011: 127).

62-1. 부모-자녀 상호작용: 사회문화 측면⁷⁵

전체 초등학생의 사회문화 측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평균 2.6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문화 측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1학기에 두 번 이상 이루어짐을 의미함. 도시에서는 평균 2.73점, 읍·면에서는 평균 2.5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2-1. 부모-자녀 상호작용: 사회문화 측면(2011)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2.64	2.21	-
도시	10,165	2.73	2.54	3.437***
읍·면지역	2,010	2.53	1.34	

*: $p < .05$, **: $p < .01$, ***: $p < .001$

62-2. 가족관계 측면⁷⁶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주기별 평균을 지역 규모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62-2>와 같이 도시지역은 평균 5.39점, 읍·면지역은 평균 5.27점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사회문화 측면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시 대비 읍·면지역 초등학생의 상호작용 시간이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62-2.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족관계 측면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176	5.34	2.21	-
도시	10,165	5.39	2.09	2.476*
읍·면지역	2,010	5.27	1.34	

*: $p < .05$, **: $p < .01$, ***: $p < .001$

75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사회문화 측면은 6점 척도(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년에 1~2번, ③ 1학기에 1~2번, ④ 1달에 1~2번, ⑤ 1주에 1~2번, ⑥ 거의 매일)로 측정되었음(임현정 외, 2011: 128).

76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가족관계 측면은 6점 척도(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년에 1~2번, ③ 1학기에 1~2번, ④ 1달에 1~2번, ⑤ 1주에 1~2번, ⑥ 거의 매일)로 측정되었음(임현정 외, 2011: 128).

63. 부모의 교육적 지원⁷⁷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평균 3.43점이었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더 많은 교육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은 3.45점, 읍·면지역은 평균 3.32점으로, 읍·면지역 대비 도시 초등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63. 부모의 교육적 지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22	3.43	.55	-
도시	6,110	3.45	.54	7.366***
읍·면지역	1,113	3.32	.55	

*: p<.05, **: p<.01, ***: p<.001

64.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⁷⁸

지역 규모별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최근 8년 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읍·면지역의 사교육 참여율은 74.9~84.7%로 도시 지역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64.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

구분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도시	91.1	90.0	88.5	87.6	85.7	83.0	82.1	81.0
중소도시	89.5	88.7	87.3	87.3	85.3	80.5	84.0	83.5
읍·면지역	79.8	79.2	84.7	83.4	80.5	74.9	74.4	75.4

자료: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학교급 및 특성별 사교육 참여율(2007~2014)

77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등 총 1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음(김양분 외, 2013: 88-89).

78 사교육은 EBS와 방과후 학교를 제외한 학원(단과반, 종합반), 과외(개인 과외, 그룹 과외), 학습지, 통신인터넷 과외를 포괄하는 개념임.

65. 사교육 참여 비율

본 지표에서는 학원(단과반, 종합반), 과외(개인 과외, 그룹 과외), 학습지·인터넷 과외 등 사교육 참여 여부를 조사했는데, 읍·면지역 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79.53%, 타 지역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65. 사교육 참여 비율

구분				단위: %
	있다	없다	가중사례수	X^2
전체	82.27	17.73	6,346	-
특별시	84.38	15.62	1,066	9.998*
대도시	83.32	16.68	1,561	
중소도시	81.84	18.16	2,732	
읍·면지역	79.53	20.47	988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김양분 외(2014). 한국교육중단연구2013(1):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 한국교육개발원.

66. 교사의 열의: 학생 응답⁷⁹

학생이 인식한 교사의 열의는 전체 초등학교 평균 4.23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 지역 규모별 분석 결과, 도시가 4.24, 읍·면지역이 4.17로, 초등학교가 인식하는 교사의 열의는 도시 대비 읍·면지역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음.

표 66. 교사의 열의: 학생 응답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70	4.23	.71	-
도시	6,141	4.24	.70	3.095**
읍·면지역	1,129	4.17	.69	

*: $p < .05$, **: $p < .01$, ***: $p < .001$

79 교사의 열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본받을 만한 점이 많으시다', '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신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됨(김양분 외, 2013: 67).

67. 교사-학생 간 관계: 학생응답⁸⁰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응답을 보면, 도시가 3.95, 읍·면지역은 3.81로 나타났는데, 이는 읍·면지역의 학생이 도시지역의 학생보다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소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67. 교사-학생 간 관계: 학생응답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7,269	3.93	.85	-
도시	6,140	3.95	.84	5.166***
읍·면지역	1,129	3.81	.82	

*: p<.05, **: p<.01, ***: p<.001

68. 교사의 열의: 교사응답

2013년 조사에서는 교사 대상으로도 ‘교사의 열의’를 조사했는데, 여기에서는 평균 3.89점인 도시의 교사 대비 읍·면지역이 4.02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읍·면지역 교사는 도시지역 교사보다 열의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표 68>, 학생의 인식에서는 도시 소재 학교 교사의 열의가 더 높다고 나타났음<표 67>.

표 68. 교사의 열의: 교사응답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42	3.94	.40	-
도시	146	3.89	.35	2.515*
읍·면지역	91	4.02	.44	

*: p<.05, **: p<.01, ***: p<.001

80 교사-학생 간 관계는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됨(김양분 외, 2013: 68).

69. 교사의 자율성⁸¹

교사가 응답한 자율성은 평균 3.98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도시지역 학교가 평균 3.98점, 읍·면지역은 평균 4.03점으로 도시 대비 읍·면지역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교사의 자율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6,827	3.98	1.65	-
도시	4,432	3.95	1.35	2.264*
읍·면지역	2,395	4.03	1.47	

*: p<.05, **: p<.01, ***: p<.001

70. 교사 효능감: 교수 효능감⁸²

교사의 교수 효능감은 평균 4.06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70. 교사 효능감: 교수 효능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42	4.06	.23	-
도시	146	4.07	.22	1.338
읍·면지역	91	4.03	.23	

*: p<.05, **: p<.01, ***: p<.001

81 교사 자율성은 학교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를 의미함. 교내 연수의 내용, 학급 편성, 보직 교사 인사 등 11개 문항이 분석되었음. 이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의견이 학교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임현정 외, 2011: 131).

82 교수 효능감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수업 후 학생들의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교과 내용에 따라 수업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수업 중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4개 문항으로 측정됨(김양분 외, 2013: 107).

71. 교사 효능감: 생활지도 효능감⁸³

교사의 생활지도 효능감 또한 위와 유사하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교사 효능감: 생활지도 효능감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42	3.82	.27	-
도시	146	3.81	.27	.281
읍·면지역	91	3.82	.26	

*: $p < .05$, **: $p < .01$, ***: $p < .001$

72. 교직 만족도⁸⁴

교직 만족도는 전체 평균 3.93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분석되었음. 지역 규모별 분석에서는, 읍·면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만족도가 평균 3.99점으로 평균 3.89점으로 나타난 도시지역 재직 교사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72. 교직 만족도

구분	가중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42	3.93	.35	-
도시	146	3.89	.35	2.163*
읍·면지역	91	3.99	.34	

*: $p < .05$, **: $p < .01$, ***: $p < .001$

83 생활지도 효능감은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 ‘생활지도 할 때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개 문항으로 측정됨(김양분 외, 2013: 107).

84 교직 만족도는 ‘교사로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맞이한다’, ‘다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교사가 될 것이다’,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 ‘현재 근무 학교에서 좋은 교육적 경험을 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현재 근무 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6개 문항으로 측정됨(김양분, 2013: 108).

[부록 2] 제4장. 농어촌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면담 데이터

1. 학교 운영

1.1. 제도 및 정책

- A: 프랑스에 갔을 때, 이민자 지역에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안가는 거예요. 애들이 살벌하다고 교육부에서 교장, 교감 다 모집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지원을 안했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 B: 학교교육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과 수업이잖아요. 이것을 변화시키면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바뀌는 것이 정책인데, 지금 혁신학교정책이 예산지원을 통한 정책이 아니라,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인거죠.
- C: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는 쿠바거든요. 쿠바는 학생이 한명만 있어도 학교 폐교 안 시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어나는 실업자를 전부 다 교육시켜서 문맹률을 낮춘 국가거든요. 교육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경제적 효율성 하나만 가지고, 이 효율성이 맞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것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경제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D: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는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하라고 해서 만들어지면 오래 못가잖아요. 마을공동체조직을 함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이 정소를 제안해주면 주도해서 운영할 사람과 따

라갈 사람들을 정할수도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누가 지원을 하고 리더쉽을 발휘하느냐가 문제인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를 분석해서 교육정책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싶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마을교육공동체는 굉장히 학교에 과부하를 주고 있어요. 위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다보니 형식화되어버리고, 그걸 일반화시키려고 노력하다보니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지요.

E: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시범적으로 몇 개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운영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계속 수정하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케이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작은학교연대학교는 모두 18개인데, 이들 학교가 거점이 되어서 주변학교들과 어떻게 교육과정을 결합하여 운영해보고, 본질적으로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면 어떨까합니다.

1.2. 예산

A: 중요한 것은 돈인 것 같아요. 농촌지역의 기초수급문제가 사실은 면지역에서 나오죠. 기초수급아이들에게서 나오고요. 방과 후 시간에 필요한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이 일년동안 나오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수학여행비나 체험 학습비 같은 것을 책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굉장한 혜택이지요.

B: 전원학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했지만, 예산이 떨어지면서 약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또 예전에 돌봄 사업이라는 것들의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학교가 가진 근원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 예산만 지원해서 변화를 유도했던 것들은 예산이 떨어지면 효과가 끝나버리게 되지요.

C: 원래 멸종동물에게는 투자를 더 많이 하잖아요. 개체수가 많은 애들한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작은 학교들 있는 데가 농촌이고 멸종위기

에 처해진 게 농림이잖아요. 개체보존을 위해서도, 다양성을 위해서도 농촌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D: 예산이 학생 수로 정해진다면, 예를 들어 겨울에 난방을 한다고 해도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차이가 나잖아요. 시설관리도 그럴텐데... 작은 학교는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학교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E: 교육부는 예산을 도교육청에 다 줘요, 그 다음 지방으로 뿌려줍니다. 학교별로 예산을 주면 금액도 너무 커지고, 지원해달라는 학교도 너무 많으니까요.

F: 협력형학교를 신청하면 15억을 준다고 해서 4개교를 묶어서 협력형학교를 신청하고 2년반동안 3억씩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지속가능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었지요. 그 예산을 받을 때 테블릿pc를 반드시 활용해야한다고 해서 우리학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예산을 받으면 반드시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한 적이 있지요. 어떤 학교는 그 예산으로 그랜드피아노를 100대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주는 것은 좋지만 학교가 뭐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어야 도움이 되지요.

G: 양평의 학교들은 정책 사업을 통해서 학생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자생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자체가 통·폐합정책을 썼는데, 작은학교의 학생 수만 느끼거든요. 전원학교의 경우, 예산이 투입이 되면 학생 수가 잠깐 늘었다가 예산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나가버리지요.

H: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예산에 여유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질 못한 이유가 학교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인력

이 학교에 들어와 있으니깐요. 학생은 없고, 학교는 줄어드는데 관리자들도 다 있다 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I: 방과 후 지원으로 유명해진 학교들이 있는데,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런 학교들은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증가하지만, 시골학교에는 방과후 교사도 정말 부족해요.

1.3. 인력

A: 농림부에서 인력을 선발해서 학교에 투입할 수는 없나요? 교사라는 이름이 어려우면 다른 이름이라도 해서요.

B: 농어촌지역에 다양한 보조 인력이 필요할 테니, 특히 복지사 같이 기초학력, 학습지도를 하는 정교사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교사를 뽑아서 지원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C: 문화 예술하는 분들도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강사인건비와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문화예술위원회활동 초기에 문광부에서 TF 팀이 있었어요. 그게 운영이 잘 돼서 지금도 학교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학교에서 고용을 안하지만, 학교로 보내지고요. 평가도 자기네들이 다 하고, 학교에서는 어느 시간에 배치할지 고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림부 차원에서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교육시켜서 파견만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E: 지자체들이 교육투자를 하는 게 다 다르지만, 실은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

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학교 보조 교사를 투입해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거나, 이런 지원이 들어간다면 시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F: 농림부 차원에서 보조교사제를 운영해서 1학년들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4. 행정

A: 교사가 교육외의 업무로 소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행정업무경감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학교가 교원 수가 안 갖춰지면 행정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B: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을 하면서 경기도 전체 학교에 실무사라는 이름으로 기존 행정 보조하는 분들이, 실무사라는 이름으로 학교장 고용에서 교육장 고용으로 안정화시켜줬거든요. 실무사들은 경기도학교에 +1, 혁신학교에는 +2, 저희학교는 +3되어있어서 교사는 그 업무를 안맡아요. 다만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하는 어려움은 있네요.

C: 실무사라는 부분이 역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큰 학교와 작은학교가 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큰 학교는 선생님수가 많고, 작은 학교는 선생님수가 적어서, 상식적으로 실무사가 작은 학교를 많이 지원해주고, 큰 학교를 적게 지원해줘야 상식인데, 큰 학교에 더 많이 배치해주고.. 작은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지원받아야하는데, 항상 숫자를 기준으로 하니깐, 작은학교에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지요.

1.5. 연계

- A: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한데, 학교조직으로는 교장이나 교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뛰어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데,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들을 동원,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하니까요.*
- B: *마을교육공동체를 보면 시민단체랑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공동체 경험이 있던 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는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학부모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6. 복지

- A: *도서관 사서를 지원을 못 받아서 급한대로 학부모들이 운영하니까, 원래의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상담심리박사가 있는데,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상담학 박사한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던데, 시골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주면 좋지요. 또 학교에 다양한 인력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으니, 군복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군인들이 와서 컴퓨터를 가르쳐줬었어요. 호응이 좋았었는데, 없어졌어요.*
- B: *학교버스지원이 꼭 필요해요. 방과 후를 하려면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게 학원이에요. 학원은 차량이 있으니 학교로서는 대책이 없는 거지요.*
- C: *작은 학교 연대를 중심으로 MOU를 맺어서 그 학교 중심으로 거점학교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준비된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규모일 때는 인적네트워크가 잘 되고 관리가 쉬운데,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생기지요. 작은학교는 멤버가 많지 않아서 20~30개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의 조직이 되려면 따로 관리단을 뒤야하지요.

D: 학교에 투자하는 것도 갑자기 기업에서 돈을 쥐서 유학을 시켜준다던지,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 학교가 성공사례라면 그런 지원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는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E: 들봄 예산은 충분한데, 보건실과 보건교사의 티오를 없애는 것은 문제지요. 보건교사가 없으니 교사 중 한명이 보건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봐줘야하는데, 교사의 중요한 업무는 행정업무가 아니라, 학생복지 업무잖아요. Wee 클래스 지원만 봐도 큰 학교 중심이고, 작은 학교는 순회를 나가는 수준으로 그쳐버리니, 작은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지원을 못 받지요.

F: 학교에서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 방과 후 학력지원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교사한명을 채용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가면, 거기서 과제지원,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농촌 아이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접근 및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지원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G: 기초생활수급이 많은 지역의 학생의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해야할지와 '복지'라는 개념으로 농어촌학교 살리기를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중심의미

참여자들은 농어촌학교가 살기위해서는 혁신학교정책을 기반 한 예산이 지원되어야하며, 예산을 지원할 때도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

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농어촌학교에는 기초학력 및 학습지도를 도와줄 보조교사 인력이 필요하며, 이런 인력은 교육부가 아닌 농림부에서 일정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하였음. 행정실무사를 도입한 이후 교사들의 행정업무부담은 줄었으나, 도시학교에 행정실무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학생 수가 적은 시골학교에는 적게 배치함으로써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였음. 농어촌학교는 차량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필요한데, 복지의 혜택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아쉬워하였음.

2. 여건

2.1. 교육적 여건

A: 농어촌에는 초등학생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농촌아이들과 도시아이들을 비교해보면 자존감이라든가 효능성에 대한 것들이, 농촌아이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경을 하는 거죠, 도시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좀, 농촌지역 아이들은 자기들이 도시아이들에 비해 쳐져있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환경에서 많이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예산투자율이 도시보다 높지 않습니다. 학교의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학생 수가 많았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교규모는 크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많습니다.

B: 학교내 공간이 많지만 지역아동센터를 돌봄교실이 행해지는 형태로 교사에게 떠맡겨지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2. 문화적 여건

- A: 학교에 결손가정, 다문화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돌봄이 이루어지지
만, 면단위에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하면 어떨까합니
다. 사회복지사, 문화예술가, 체육인등을 연계해서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을
시키는 거죠.
- B: 농촌의 강점으로 자연 친화성을 살리면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 체육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 문
화예술 강사, 체육 강사 등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꾸려나가고 학교가 연계해
서 버스로 이동하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C: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거기에 예체능 강사들을 배치해서 운영하면 아
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중심의미

참여자들은 열악한 농어촌학교의 교육 및 문화여건을 향상시키려면 인근지
역의 문화예술인력 등을 가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
건이 제공되어야함을 주장하였음.

3. 작은학교 교육

3.1. 성공요인

A: 삼우초등학교는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찾아야할지를 교사스스로가 찾아서 대안을 만들면 교육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교사들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수업에 대한 문제를 찾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찾은 개선방안이 ‘일상수업산책’이라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2년 동안 했어요. ‘일상수업산책’은 ‘관찰하고 토론하고 사유하는 큰 틀’인데, 토론을 하는 거예요.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시간을 정해서 논의를 해야 하고, 논의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협의안이 있어야해요. 우리학교는 3월 첫 주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옆 반 선생님한테 수업을 공개해요. 옆반 선생님한테 수업을 공개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점심때 밥먹으면서도 수업에 대해 얘기하고, 그게 큰 즐거움이 되어버린 거지요. 학부모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알아서 하게 둔 거예요. 이렇게 총화를 하니깐,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그 학교 학부모총회를 끌고 가게 되니까, 인근지역학교가 다 같이 변화하게된 거죠. 사고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되요. 도시교사보다 농촌학교교사가 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고를 가지게끔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 삼우초는 내부형 공모교장인데,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행정업무도 감당해주셔요. 학부모들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인데, 이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학교에 문화적인 자극을 많이 주세요. 삼우초의 학부모들은 저녁 7시에 만나서 11시까지 이야기마당이라는 것을 해요.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문화행사 같은 것도 해요. 단오한마당같은.

- C: 삼우초같은 학교를 만들려면 인사권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가고 이 뜻을 같이 할 교직원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아무래도 학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동참해주셔야 하고, 그게 한두 명보다는 5~6명이 다 같이 낼수 있어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 D: 옛날 학교에는 관사라는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만약 관사가 마을 속에 들어가 있다면, 마을어르신 아이도 돌봐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교사들한테 만약 거주비도 주고, 귀촌수당도 주면 어떨까요? 교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이 되면 그 지역사회와 같이 소통하고 학교를 살리는 일도 하고요.
- E: 작은학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변화와 거기에 따른 적정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평에 있는 학교들은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몇 개의 학교가 체질개선을 해냄으로써 학교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과밀화되었어요, 어쨌든 알려진 학교들의 프로그램을 인근지역 학교들이 배우기시작하면서 양평지역학교들이 균등하게 변화한 거지요.
- F: 작은학교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한 학교는 교사들의 욕구와 학부모의 욕구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의 이상과 학부모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맞아서, 그러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학생이 증가한 경우라고.. 그냥 학생이 10명~17명 정도 남아있는 학교에서, 그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유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작은학교연대 소속 학교에 들어간 교사들은 아무래도 교육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 G: 남한산초등학교가 15년 되었는데, 이 체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유지된다

는 것은 애초에 생각하지 못 했어요. 작은학교연대에서 짧게는 2~3년 새로 가입한 학교들 중 매년 한두 개는 새로운 학교가 계속 생겨나더라구요. 중요한건 이러한 학교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지요.

3.2. 사교육

A: 우리학교는 전통적으로 국악을 1학년 입학 때 부터 6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방과 후 시간으로 학부모가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 후 교사 인건비를 시간수당으로 주면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런 시골에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방과 후 비용을 받아서 월급으로 지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도 월급이 안정되니까 몇 년째 올수 있고, 학생들도 몇 년씩 배우니까 수준이 높아지고, 인근에 사교육기관이 올수가 없어요. 아이들 수준이나 교사수준이 높으니까 아무도 사교육을 하려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학부모가 학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거 같아요.

3.3. 프로그램

A: 도시에서 아이들 키 크게 하려고 체형 교정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던데, 그러한 프로그램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재능기부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농어촌학교에서 그런 분을 모셔서 아이들 건강챙겨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B: 일전에 전원학교를 방문해봤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스마트한 교실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던데, 작은학교연대가 추구하는 프로그램은 보다 본질적이며, 내부적이여서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게 학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연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지속적일 수 있도록 좀 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인문교육 글쓰기 프로그램인데, 공모추진을 계획해서 다른 작은학교연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각 부처가 연합해서 학교를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는 교육과정, 통학문제는 지자체, 문화프로그램은 문화부, 가정문제는 복지부나 여가부등, 각 부처의 역할들을 부여하면 농림부가 타 부처에 협력을 하는 거지요. 또 기업체지원도 많잖아요. 부처에서 학교로 직접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구·시의원들이 지원하려고 맘만 먹으면 가능하지요.

D: 문화예술거점학교라고 사업비를 받아서 주변지역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발전도 같이 이루게 되지요. 시골 거점학교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파하면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지역모임을 꾸려가고, 지역모임에서 사업을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럴 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학교가 거점학교가 되어야 해요. 시설부분의 예산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에는 시설지원을 안해줘요. 어차피 없어질 학교라고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시골의 아이들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 중심의미

참여자들은 작은학교가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사가 학교를 변화시켜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부모, 학생을 변화시켰으며,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학교,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교사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학부모를 감동시키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임을 설명하였음.

4. 학생·학부모

4.1. 가정적 여건

A: 농촌에는 다문화가 많잖아요. 다문화로 인해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기초수급이나 이혼, 조손가정으로 버려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게 농촌학교의 현실입니다.

B: 시골에는 다문화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전부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교사를 연수해서 해결하려고 들지요. 그래서 다문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은 다문화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4.2. 학업성취도

A: 사지선다형 문제를 잘 푸는 걸 일반적으로 학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함께 하면서 느낀 학력이란 선다형 문제를 잘 찍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잘 갖춰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학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키타현같은 경우에 하나의 지자체가 교육을 지원에서 얻은 성과잖아요. 일본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학력을 계속 이뤄내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 학생 수가 적는데 비해 교사수가 많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 학생 수가 많은 이유는 돌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환경의 아이들은 오히려 남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정환경이 학습부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3. 심리적 특성

- A: 농촌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패배의식이 깔려있어요. 농촌의 아이들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합니다.
- B: 시골학교일수록 학교폭력 같은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요. 왜냐면 학교가 오픈되어있어서, 숨기질 않기 때문이지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애 네가 1학년에 들어오면 거의 부부가 되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고 같이 계속 올라가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쌓여있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좌절감 느끼는 애들도 많고, 소외도 심해요.
- C: 예전에 농어촌학교를 갔는데, 성폭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봤어요. 겨울밤에 다들 모여앉아서, 결국엔 그 사이에서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하는걸 보면,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 D: 행복지수가 시골아이들이 아주 낮아요. 사귄 수 있는 친구의 범위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고착돼요. 우리 반에 남학생이 14명, 여학생이 4명인데, 아이들 관계가 너무 얽혀있어요. 상담이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 E: 우리학교는 100%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예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구성원이 다양하니까, 일정기간동안 다툼도 하고 소소한 싸움정도는 해도 학폭위는 15년간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위에서 대부분 푸는데요, 그런 문화를 갖기까지 교사들은 오늘도 한시간 반 내내 애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지요. 저희학교 학부모茶道모임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도 학폭위로 갈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풀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중심의미

참여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이 시급하며, 기초학력이 부족으로 인한 열등감과 도시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패배의식이 존재함을 걱정하였음. 그러나 작은학교연대로 인해 학교가 변화하면서 학부모가 학교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상생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음.

5. 교원

5.1. 철학 및 인식

- A: 시골학교로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초등학교 시절만큼은 자연에 가까이 있고 싶고, 또 도시에 살면서 아토피 같은 질환이 생기니까, 시골로 아이들을 보내는 거지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도시에 살지만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보내고, 또 시골에서 도시학교로 아이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서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골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아이들이 시골에서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다는 생각인거죠. 시골은 불편해서 살기 어려워, 라는 생각 보다는요.
- B: 교육의 근본적인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농촌지역에 가서 근무하려는 교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010년에 혁신학교에 있을 때 농촌학교에 갔었는데, 그때부터 전학을 많이 왔어요. 학부모들은 성적과 작은 학교의 강점들을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2013년까지 교사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또 정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일제교사를 안봐요. 처음에는 학부모들도 이렇게 하면 중학교 안 떨어질까요 하면서 불안해하더니, 도시 갈 것 같던 사람들도 안가더라구요.

- C: 양평의 교사들은 자기 자녀들을 양평의 학교로 진학시켜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그런데 이천지역의 교사들은 계속 거기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도시로 나가거든요. 상위대학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시골지역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양평의 경우는 일반화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양평에 들어오는 교사들은 함께 근무하면서 이곳의 혜택도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은 교육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양평은 문화, 환경의 도시 했다가 요새는 문학, 환경, 교육의 도시라고 이름붙일 정도로 달라졌는데 이천은 예전과 다름없는 거지요. 이천은 승진 점수만 따고 나가게 되니 경기도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학교에 대한 불신도 높아요.
- D: 덴마크에는 몇 사람의 학부모, 교사가 모여서 학교를 열겠다고 국가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를 열어주는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 E: 최소 교육조건은 현재는 분교패턴밖에 없는데, 더 작은 수의 패턴은 스몰스쿨제라는게 있어요. 한 학년 수준으로, 혁신학년제라고요. 그런 학교의 부장 선생님한테 교육과정구성권, 예산권, 인사권을 쥐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명칭을 부교장정도로 하고 권한을 주되, 수업도 하고 몇 명의 교사를 관리도 하고 그런 체제가 되면 굳이 분교로 전환하지않아도 되거든요. 분교체제에 대해 연구해서 만약 전체 학생 수가 6학급이면 교사 최소 6명에 행정인력 1명을 주고, 교장이나 부교장급을 주고 권한을 주는 제도가 필요해요. 실제로 지금 분교에서 본교로 돌아갈 때 가장 큰 고민이 분교의 교사들이 교장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교장이 와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니까 힘든 거죠.

F: 적정 학생 수가 한 학급에 15명이라면서요. 그럼 1~3학년, 4~6학년으로 묶으면 어떨까요?

G: 농어촌학교의 문제도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발성있는 사람들이 만든 교육과정으로 교육철학을 펼 수 있는 제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도는 교육부가, 문화는 교사가 만들어서 이 둘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 싶어요.

H: 교육복지는 어려운 곳으로 가야하는데 오히려 큰 곳으로 쏠리는 현상들, 그리고 작은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시설과 학력은 열악해지는 것들, 인사 부분에서도 시골학교에는 인사상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지면서 점점 시골학교로 찾아오는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곳을 좋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빨리 벗어날까”로 고민하는 곳이 되어 버린거요. 마을에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지요. 노인들만 남아서 사는 마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참 아쉬워요.

5.2. 근무여건

A: 근무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교사들이 학교근처에 살려고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농담으로 외인구단이라고 전부 외부인들이 학교에 모여서 교사활동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왔습니다.

5.3. 학생과의 관계

A: 면지역 학교의 특수성을 보면 교사와 학생이 매우 친밀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6학년까지 거의 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하잖아요, 그럴

경우 한번 왕따가 되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왕따가 되지요. 큰 학교 같으면 아이들이 바뀌니까, 1학년 때 왕따였어도 2학년에는 아이들이 바뀌니까, 새로운 친구도 사귀도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작은 학교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지요.

5.4. 교수학습활동

- A: 예전에 정부에서 농촌지원 한다고 하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작은학교회원 학교들은 단순히 방과후 수업을 무조건 활성화하기보다는 교육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학교에서는 학습 지원실을 운영했었는데, 학생의 학습부진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찾아보려고 한 거예요. 제 경험엔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심리적인 부분까지 보려고 했어요. 학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몇%가 정규직이 될지,, 진정한 학력이란 학교이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뭘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B: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변화하려면 적어도 5년간은 지원해줘야 변화합니다. 예를들어 1학년 때 들어온 학생은 2년이면 괜찮아지는데, 2,3학년 때 전학 온 아이들은 3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교사도 바뀌고, 교육목표도 일관성이 없고, 그러니 아이들이 변화가 없는거지요.
- C: 교사 중 95%들이 교육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합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로 길러낼 것이냐 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이 나오고, 그에 따른 수업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는 게 평가인데, 단기간 내에 할 수가 없지요. 예를들어 글쓰기노트를 보면 부모들이 인정하게 되지요. 얼마나 꾸준히 노력해야하는 것인지를.

D: 저희학교는 글쓰기 공책이나 이런 게 6년치가 있어요 학교에서 교사가 개발해서 학생들과 같이 써요. 글쓰기 공책엔 아이들의 국어능력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삶도 알 수 있어요.

E: 방과 후 활동이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학원을 학교에 가져다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학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준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6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학부모와 협의해서 정했지요. 전교생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과목으로요. 저희는 국악을 6년간 모든 학생이 배우도록 하고 있어요. 방과 후 교사도 월급수준으로 쫓구요.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몇 만원 벌려고 오는 선생님은 없지요.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지원금 받은 걸로 강사수당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지요. 실제로 국악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대학을 국악쪽으로 간 아이들이 상당수 있어요.

※ 중심의미

농어촌학교의 교사들은 근무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진정한 교육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을 구안하고 있음. 특히 교수학습활동은 적어도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어야 학생의 성취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하였음.

6. 대안

6.1. 분교정책

A: 저희 학교는 분교에서 본교가 되었는데, 분교에서 본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가 88명인데, 분교니까 행정직, 관리직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관리가 안되잖아요. 교육이란 게 교사와 학생들만이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

라, 학교 공간에 있는 모든 시간이 교육의 시간이잖아요 만약 학교가 분교가 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관들을 잘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머물러서 사는 이유는 경제적 상황 때문이거나, 그 지역이 좋아서 살아가는 건데, 분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 이하가 되면 폐교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B: 서당학교 개념있잖아요 큰 교실, 운동장을 서로 나눠서 사용하면 어떨까 해요 학교공간을 서로 활용하거나, 지역 공공시설들을 활용하거나, 기획재정부에서 관심 있는 건 돈이니까, 작은 학교를 복식학교로 운영하거나,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6.2. 인사정책

A: 인사정책으로 시골지역에 교사들이 2년 만에 나오는 게 큰 문제여서 신규교사를 뽑을 때 부터 한번가면 10년 동안 근무한다고 정해놓으면 어떨까요?

B: 교사임용이 되면 교원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장 쉬운 곳으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지역이동을 하려고 매년 시험을 봐서 교사가 열악한 지역은 계속 열악해요.

C: 예전에 양평 같은 곳은 거의 사지나 마찬가지로였어요, 울면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가려는 사람들보다 들어오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교육 때문에 학교가 바뀐 거지요 교사가 교육을 하려고 교사가 된 건데, 농촌에 와서 승진점수 따고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농촌에 애정이 없는 거고 해당지역의 교육자체에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교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사들이 교육 본질을 찾으려고 들꺼라고 생각해요.

- D: 가산점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교장, 교감선생님들 발령을 받고 양평에 와요, 자리가 부족해서요, 그러다가 1,2년 있다가 가요 그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연구시범 학교 끝나면 가고 이런 곳에서 학교,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사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양평지역의 학교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20년 이상 꾸준히 근무했을 때,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다면 내부적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지역 교육문제도 지역사람들과 잘 풀어갈꺼라고 생각합니다.
- E: 승진가산점 제도가 실패한 것은 다들 아는 얘기인데, 그 유인책이 시골지역 교육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시골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교사로 있어야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만 국회의원하지요, 가산점혜택이 없는 경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F: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제도를 운영 중 라서 그런 것 같네요 학교에서 교원을 선발하는 제도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 G: 시골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를 승진시킨다던지, 한 지역 장기 근속하는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변화나 준칙안을 지역의 도 단위에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 H: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4년 초빙으로 오시니까, 4년 동안은 최소한 안정되고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년제 교장 담임제를 해보니, 교장이 가르치지는 않고 관리만 하려고 드니까, 교장직이 얼마나 힘든 것 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5년제로 바꾸고 공모제를 확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감하고 나서 교장되면 4년하고, 정년이 아니면 최대 8년까지 할수 있는 교장을 좀 줄여주자는 거예요 일반공모제를 15%에서

최소 50%로 확대하고 이게 어려우면 농어촌지역부터 확대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I: 저도 5년째 학교에 있었는데, 교장선생님만 4번 바뀌었어요. 하도 바뀌어서 작년에 공모제를 도입했어요.

J: 예전에 내부 공모제가 있었는데, 비율이 계속 줄고, 교총이나 교장집단에서 제한하고 반대했네요. 농어촌에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교원의 자발성이라고 봐요. 열의있는 교원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하면 학교분위기도 바뀌는 것 같아요.

K: 문화예술교육강사는 문광부에서 큰 편드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문제는 농림부에서 그런 예산이 있냐는 거지요.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그런 예산이 없으면 안되는 거고, 보조교사문도 학교내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거라서. 또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도 학교가 배타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막고 있어서요. 농림부나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학생과 관련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L: 교장선생님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아마 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협동조합체제로 가는데, 도서관을 사서문제도 있고 해서 학부모님이 운영하게 하는 거요.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지도 분명해야 할 것 같고요.

M: 지역기반으로 묶어서 3개 학교가 도서관을 공동사용하게 한 적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지어 준 것도 있었는데, 사용도가 미미했어요. 학교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학교 안에 또 도서관이 있더라구요.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입장에서는 기존의 교장선생님 관리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농림수산부가 개입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 센터처럼 학력지원교실 같은 것도 만들어서요.

6.3. 적정 학생 수

- A: 극소수학교와 소규모학교와는 좀 다른데, 학생 수 20~30명같이 극소수 학교는 교육부도, 시스템으로도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 B: 작은학교로 들어온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있으면 폐교될꺼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학교였어요. 옆 학교에서 작업이 들어와요. 폐교시키려고 그러한 위기 의식에 시작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30, 40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마을을 모아줄 수 있는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학생단위의 학교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 C: 이상하게도 지원을 해줘도 사라지는 학교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런 학교를 지원해주는 게 좋은지, 몇 명을 기준으로 폐교를 정해야 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나중에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 D: 대부분 12~15명 정도면 분교로 운영하고 있던데, 제가 푸르내초등학교를 가봤더니, 15~24명의 아이들이 무학년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1~3학년 과 4~6학년을 모아서 15명정도선에 있으면 학교단위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지원체계, 교원 수 라던지, 기사님이라던지 좀 알맞게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E: 학생 수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해봤더니, 19~24명일 때가 효과가 높아요.

학생 수가 적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어야한다는 거지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F: 아직까지는 학교가 일반학교와 분교, 이렇게 두체제예요. 분교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학교체제를 만들고, 지원금을 좀 더 줄이고, 인력을 줄이고, 그렇게 학생 수에 맞게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G: *Extended Class* 라는 게 있는데요. 교실 한 칸만 남겨두고 다른 교실은 다른 용도로 쓰는 거지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하던데요. 전에 어디서 본건데, 학생 수가 세 명인데, 교실도 있고, 강당도 있고, 그래서 다들 좋다고 했지만, 만약 이게 없어지면 학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 명이니깐 교실 한 칸만 남겨놓고 다 없앤다고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지요. 만약에 어떤 산업이 들어와서 학교를 요구할 때 다시 가지는 못한다는 얘가지요.

H: 옛날에 지은 학교들은 큰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학교가 커요, 학교라면 작은 학교도 있어야하고, 한 교실이 왜 학교가 안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지역주민에게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I: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면 교실 한 두개는 보건 쪽에 주는 거예요. 보건소를 학교 안에 짓는 거지요. 마을 도서관도 짓구요. 학교건물은 반드시 교육적으로만 써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지요.

J: 외부기관이 학교에 들어오면 관리책임을 교장선생님들이 져야하니깐,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일부는 양로원도 짓고,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가끔 학교에 자원봉사도 오시고, 아이들도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K: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형태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론형과 대안형으로 나눠서 농림부에 제안을 하되, 교육부와 농림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0년 전부터 적정규모학교 모형을 주장해왔지요. 적정규모학교란 소규모학교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개념을 전도한 거예요. 적정규모가 뭐냐는 논의가 매년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200명이었다가, 지금은 60명이 된 거예요. 60명이하가 폐교되어야한다면 지금 폐교되어야할 학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 중심의미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동일한 규모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을 이유로 일방적인 적정학교규모를 정하고 학생 수가 60명이하이면 폐교를 하고 있음. 농어촌지역의 근무가산점제도가 악용되고 있어서, 시골지역이 좋아서 근무하고자 하는 교사들마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 참여자들은 작은 학교는 내부공모제를 도입하여 농어촌학교에 맞는 교장을 선발해야하며, 시골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를 승진시키거나 교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또한 교실 한 칸의 최적 교육 학생 수인 12~15명을 위한 교실은 남겨놓고, 유휴 학교시설을 양로원이나 보건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가 폐교되지는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음.